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4
협동연구 2006-01-4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박수미 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07-0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06-07-02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06-07-04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07-05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 관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안나 연구위원	도세록 부연구위원
			윤홍식 교수	이윤석 교수
			신인철 선임연구위원	김필숙 연구위원
			김정연 연구위원	임주연 연구위원
협 력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원 대 학 교	김태현 교수	손준중 교수	김지경 교수
			박강용 연구사	김혜환 연구위원
	한 국 여 성 개 발 원	박수미 연구위원	오은진 연구위원	박기남 교수
			문현아 연구위원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조남훈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교수
			김경래 선임연구위원	유혜영 연구위원
	한 국 교 육 개 발 원	박효정 연구위원	정미경 부연구위원	박종효 부연구위원
			김태은 부연구위원	한세리 연구조원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시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세대간 인구규모의 격차로 인하여 향후 노인인구는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하는 중기·후기 고령층인구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에는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가치관들은 “옳고 그름”이나,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여부를 떠나 적어도 결혼과 자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성 등 제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고,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한 전달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우선 본 협동연구를 총괄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님의 연구진들께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함께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에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위해 협조해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본부),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및 132개 표본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정경아 박사와 김혜영 박사, 한국여성민우회의 박봉정숙사무처장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연구를 진행해 주신 공동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고서가 미래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목 차

Abstract	13
국문초록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검토	20
제1절 성 형평성(gender equity)과 출산력	20
제2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23
제3장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28
제1절 조사설계와 조사대상	28
제2절 청소년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 결과	41
제4장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76
제1절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76
제2절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131
제3절 한국형 성평등한 가족문화 발전 방향	147
제5장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150
제1절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 현황	150
제2절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177
제3절 한국형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방향	198
제6장 미래세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제언	201
참고문헌	205
부 록	213

표 목 차

〈표 3- 1〉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	29
〈표 3- 2〉	전국 지역별 학급수	30
〈표 3- 3〉	지역별 표본 학교수	30
〈표 3- 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30
〈표 3- 5〉	지역별 조사결과	31
〈표 3- 6〉	성별 조사결과	31
〈표 3- 7〉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 및 내용	34
〈표 3- 8〉	조사대상학생의 개인적 특성	37
〈표 3- 9〉	조사대상학생의 가족 특성	39
〈표 3-10〉	가족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42
〈표 3-1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43
〈표 3-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4
〈표 3-1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4
〈표 3-1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45
〈표 3-1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한다 ..	45
〈표 3-1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한다	46
〈표 3-1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47
〈표 3-18〉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이유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48
〈표 3-19〉	가족에 관해 배운 내용(복수응답)(성별/학교급별)	49
〈표 3-20〉	가족에 관한 내용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성별/학교급별) ...	50
〈표 3-21〉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51

〈표 3-22〉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52
〈표 3-23〉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성별/학교급별)	53
〈표 3-24〉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성별/학교급별)	53
〈표 3-25〉	학교급·학년별·성별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차이 ..	54
〈표 3-26〉	일반적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55
〈표 3-27〉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55
〈표 3-28〉	기대자녀 수(출산의향 자녀 수)(성별/학교급별)	56
〈표 3-29〉	성별 이상 자녀수 성 선호 여부(성별/학교급별)	57
〈표 3-30〉	가족생활척도와 직업생활척도의 요인행렬	58
〈표 3-31〉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61
〈표 3-32〉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62
〈표 3-33〉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62
〈표 3-34〉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63
〈표 3-35〉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63
〈표 3-36〉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64
〈표 3-37〉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64
〈표 3-38〉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65
〈표 3-39〉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65
〈표 3-40〉	여자가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66
〈표 3-41〉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6
〈표 3-42〉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성별/학교급별)	67
〈표 3-43〉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68
〈표 3-44〉	더불어 사는 삶	71
〈표 3-45〉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71
〈표 3-46〉	자유로운 생활	72
〈표 3-47〉	인간에 대한 사랑	72

〈표 3-48〉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73
〈표 3-49〉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73
〈표 3-50〉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74
〈표 3-51〉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75
〈표 5- 1〉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특징	155
〈표 5- 2〉	중학교 도덕, 사회 교과서의 남녀 직업 구성	160

그림 목 차

[그림 2- 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22
[그림 2- 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25
[그림 4- 1]	세계의 결혼 의식	79
[그림 4- 2]	확대가족의 모습	80
[그림 4- 3]	가족형태 변화의 이중성	80
[그림 4- 4]	4인 가족의 모습	83
[그림 4- 5]	가족 내 성별분업	85
[그림 4- 6]	소비와 연관되는 여성	85
[그림 4- 7]	시골장터의 모습	86
[그림 4- 8]	주부로 묘사되는 여성	86
[그림 4- 9]	아이를 등에 업고 컴퓨터를 하는 여성	88
[그림 4-10]	가사노동 분담 및 여성의 사회진출	90
[그림 4-11]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92
[그림 4-12]	수직적 가족관계의 사례	95
[그림 4-13]	중학생의 하루 평균 시간 사용량	98
[그림 4-14]	자원봉사 하는 여성들	100
[그림 4-15]	조부모를 돌보는 여학생	100
[그림 4-16]	남녀 성비 불균형의 설명	108
[그림 4-17]	전통 혼례 및 오늘날의 결혼 모습	108
[그림 4-18]	이주노동자들의 명절	113
[그림 4-19]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115
[그림 4-20]	가정 내 성역할 변화	115
[그림 4-21]	고정적 성역할을 주입하는 자녀교육	119

[그림 5- 1]	인간의 대표로 전제되는 남성	152
[그림 5- 2]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153
[그림 5- 3]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153
[그림 5- 4]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154
[그림 5- 5]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158
[그림 5- 6]	여성들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모습	158
[그림 5- 7]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들	159
[그림 5- 8]	대표적 직업인으로 남성만이 소개되는 삽화	161
[그림 5- 9]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65
[그림 5-10]	근대화, 정보화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166
[그림 5-11]	세계화와 성별직종분리	167
[그림 5-12]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167
[그림 5-13]	여성비하적 성별 묘사	168
[그림 5-14]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로 묘사되는 여성	169
[그림 5-15]	사회 갈등의 주체로 묘사되는 남성	170
[그림 5-16]	정치·경제 영역의 주체로 전제되는 남성	171
[그림 5-17]	실직한 남성의 모습	172

Abstract

A Study on Future Generation Youth's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This study begins with a premise that gender equality is an important issue that must be dealt with in order to remedy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rate. Under such a premi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family and employment found especially among the youth, the future generation and look for possible solution for improvement.

To do so, this study examines youth's values on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general values based on a survey on youth's values. Youth's attitudes toward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were similar in formal aspects but showed much flexibility. Not only youth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tolerance to various forms of family but also had a higher gender equality awareness than the youth in the past. Especially, the support for the sharing of house work was much higher than the past. Nevertheless, the result of the survey on youth's values shows clearly that there is a big gender gap. Not only girls had higher gender equality awareness than boys but also they saw universalism and self achievements as more important than boy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ny educational materials including school textbooks to deal with the gender differences in various values and attitudes and attempt to reduce the gap.

In this study, various approaches were made to propose possible directions for the future generation's gender equality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Through analyses of textbooks widely read by youth,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obstacles against gender equality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to propose possible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fitting to South Korean society. In all cases, openness and social tolerance were two important values to be raised. In conclusion, this study is a research on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future generation youth with a premise that gender equality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is one of the fundamental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extremely low fertility phenomen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다양한 의식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법·제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는 가족문화·고용문화를 모색해 보았다. 어느 경우이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의 증대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이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래세대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이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은 2005년 현재 급기야 합계출산율 1.08명을 기록하며 최근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가로 자리매김되었다. 인구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인구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점을 실기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더욱 뜨거워져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만 하는 과제이다.

최근 정부는 2006년~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여개 과제에 32조원의 재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대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이 야기된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얼핏 보기에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사적 과정과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출산력과 같은 인구현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개별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집단들에게는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과제가 출산력 수준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은 물론이려니와 남성에게도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테마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상호 연관된 두 과제를 위하여 특히 미래세대에 주목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¹⁾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회 가족문화, 고용문화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축,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이뤄진다면 개인은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발달단계 또는 생애주기상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가치관조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성평등성과 출산력 수준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 모두 출산력 회복에 중요하다는 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가치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조사결과를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성평등 가치관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 본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족문화를 점검해 본다.

넷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고용문화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고용문화를 점검해 본다.

다섯째, <청소년가치관조사> 분석 결과와 앞 절에서 제시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 주제 관련 문헌 연구 및 이론적 쟁점 도출
-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관련 국내의 법, 제도 자료 수집, 검토
-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관련 국내의 실험적 사례 자료 수집, 검토
- 한국사회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점검을 위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통계 분석
- 청소년 성평등의식 제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수시 운영

제 2 장 선행연구검토

제 1 절 성 형평성(gender equity)과 출산력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출산(low fertility)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박수미, 2005).

McDonald(2000)는 출산을 감소 이론에서 젠더 형평성의 역할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가족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도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Künzler, 2002).

다시 말해서, McDonald(2000)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지향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지향적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내 성별분업이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지향적제도는 평등한 반면, 가족지향적제도는 불평등한 데서 나오는 차이를 의미한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극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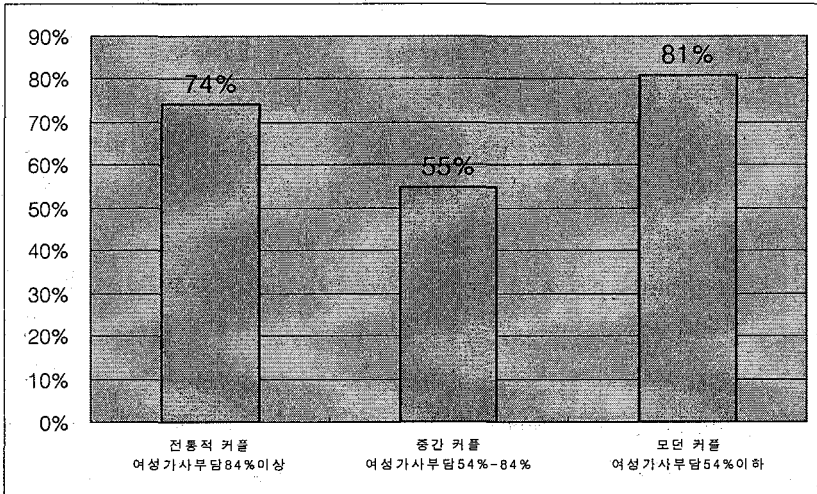
호크실드(Hochschild, 1989)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안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제도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둘 다 여성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린드퍼스 등(Rindfuss, Brewster & Kavee,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육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수록 출산을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Brewster & Rindfuss, 2000; Morgan, 2003; Lehrer & Nerlove, 1986)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성(父性)적·사회적 개입의 결여 때문”이라는 폴브(Folbre, 1997)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Chesnais, 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뿐 아니라 성 평등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

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그림 2-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자료: Torr & Short, 2004, 재구성(이재경, 2005에서 재인용).

토어와 쇼트(Torr & Short, 2004)는 쉘내(1996)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가사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가사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구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그림 2-1 참조)²⁾. 토어와 쇼트(2004)의 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McDonald(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내 성평등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가사분담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쿤즐러(Künzler,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년간 증가해 왔다. OECD와 BLS 자료에 따르면 1960~2000년 사이 미국,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 증가했다(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rewster and Rindfuss 2000;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0; Klerman and Leibowitz 1999).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다(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03).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erman and Leibowitz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론지었다(Angrist and Evans 1998; Cramer 1980).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산과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Lloyd 1991; Mason and Palan 1981). 따라서 서구

사회 이외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DeGr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Lloyd 1991; Van Esterik and Greiner 1981).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과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이 고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변수가 상이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맥도널드나 웨네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동일한 성 형평성 수준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출산력 상태를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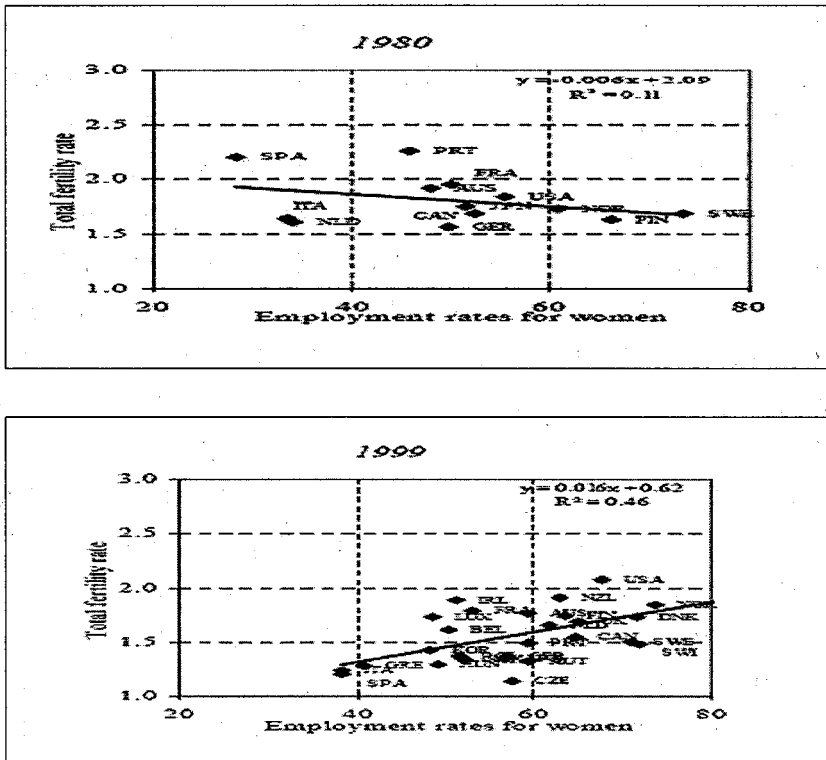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전 사회의 출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산조절 기술 등 출산 행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경, 20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거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2-2 참조) 1980년에는 여성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9년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그래프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R^2=0.46$ 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자료: Sleebos(2003), p.20.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출산을 미루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출산 연기 결정요인은 초기 성숙기의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미루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에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부유럽의 경우를 보자. 남부 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은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에 비해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남부유럽에서의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왔다. 남부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개인 수준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 연기 및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견된다. 최경수(2003)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 출산 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소득이나 커리어 전망이 감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Sleeboos, 20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위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청년층 실업 증가,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birth postpon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되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부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간제 근무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이나 직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부족분이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서 보충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자체 한계로 작용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가족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가사노동 분배에서도 성 형평성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나라의 사례는 성 형평성에 대한 맥도날드의 관찰 내용에 부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관찰 내용인즉, 매우 낮은 출산율은 노동 시장과 같은 개인지향적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지향제도 내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의 결합에서 결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 사회보다 높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 여성은 아직도 일과 자녀 양육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출산율 모두 서구 사회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제 1 절 조사설계와 조사대상

1. 조사설계

가. 조사규모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학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11~18세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연령에 속한 학령의 재학생에 한 하였다. 본 조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

학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다. 표본추출 방법

1) 표본 학교 및 학급의 추출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년, 이름, 성,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표 3-2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 3-2〉 전국 지역별 학급수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표 3-3〉 지역별 표본 학교수

1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14	12	5	31
중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2)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구분	학생수 (천명,%)	학교수 (개)	1.6%표본 학교수(개)	추정	
				학급수 (학년당 1학급)	학생수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교(5, 6학년)	1,380(26.8)	5,642	31	62	2,170
중교(1~3학년)	2,010(39.0)	2,935	47	141	4,935
고교(1~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	10,690	132	365	12,775

2.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가.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여 총 131개 학교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은 학교의 지원과 조사원의 지도에 의하여 당일 출석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11,250명이 조사완료 되었다(표 3-5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3-6 참조).

〈표 3-5〉 지역별 조사결과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교(5, 6학년)	761	808	328	1,897
중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교(1~3학년)	439	40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3-6〉 성별 조사결과

구분	지역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초교(5, 6학년)	1,005	889	3	1,897
중교(1~3학년)	2,394	2,104	4	4,502
인문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교(1~3학년)	447	474	1	922
계	5,866	5,374	10	11,250

나.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 를 갖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총화추출로 조사되었으므로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학생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 ①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M_{hi} = \frac{N_h}{n_h} \frac{A_{hi}}{B_{hi}} \quad (1)$$

이 공식에서

M_{hi} = 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dots, 12$

i =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학급수

A =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 조사완료 학생수

- ②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hat{B} = \sum_h \sum_i \sum_j M_{hi} B_{hij} \quad (2)$$

- ③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 \sum_h \sum_i \sum_j B_{hij} \quad (3)$$

- ④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 \right) \quad (4)$$

-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 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hat{Y} = \sum_h \sum_i \sum_j W_{hi} Y_{hij} \quad (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⑥ 층 h 에서의 추정치 $\hat{Y}_h$ 의 분산은

$$Var(\hat{Y}_h) = \sum_i^{n_{hi}} N_{hi}^2 \left(\frac{N_{hi} - n_{hi}}{N_{hi}} \right) \frac{s_{hi}^2}{n_{hi}} \quad (6)$$

$$\text{여기서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n_{hi}} y_{hij}^2 - \frac{\left(\sum_j^{n_{hi}} y_{hij} \right)^2}{n_{hi}} \right)$$

- ⑦ 표본오차 $SE(\hat{Y}_h) = [Var(\hat{Y}_h)]^{1/2} \quad (7)$

- ⑧ 상대표본오차 $RSE(\hat{Y}_h) = \frac{SE(\hat{Y}_h)}{\hat{Y}_h} \cdot 100 \quad (8)$

3. 조사 내용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설문 항목은 ‘개인 및

가족사항, '가족관계',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정책',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이렇게 10개 항목이다. 전체 설문지는 59개 문항, 109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7〉 조사설문지의 항목 구성 및 내용

구분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수 (개)	하위문항수 (개)
개인 및 가족 사항	1	성별	13	1
	2	형제자매수		1
	3	형제자매수 태도		1
	4	부모생존여부		1
	5	부모의 이혼여부		1
	6	양육대상자		1
	7	부의 학교급		1
	8	모의 학교급		1
	9	희망 교육수준		1
	10	부모의 취업상태		1
	11	가족구성(확대·핵가족)		1
	12	가구의 경제상태		1
	13	종교		1
가족관계	14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2	1
	15	부모간의 관계		1
가족관	16	학생의 가족관	6	6
	1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		1
	18	다양한 가족형태 발생 이유		1
	19	학교 가족 담당 과목		1
	20	가족내용 이해도		1
	21	가족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		1
결혼관	22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5	1
	23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1
	24	학생의 결혼관		12
	25	결혼 의향		1
	26	배우자의 조건		1

<표 3-7> 계속

구분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수 (개)	하위문항수 (개)
자녀관	27	자녀의 필요성	9	1
	28	자녀 출산 의향		1
	29	희망 자녀수		1
	30	남아 선호 여부		1
	31	자녀를 두는 이유		1
	32	자녀를 두지 않는 이유		1
	33	학생의 자녀관		10
	34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1
	35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1
성역할관	36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5	1
	37	집안일 분담에 대한 태도		1
	38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태도		1
	39	가족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1
	40	학생의 성역할관		3
성교육	41	학교 성교육 내용	11	1
	42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		1
	43	학교 성교육의 성지식 습득경로		1
	44	성문제 상담 대상자		1
	45	학생의 성지식 정도		5
	46	학교 출산 담당 과목		1
	47	출산에 대한 학생 태도		1
	48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1
	49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1
	50	혼전임신에 대한 태도		1
	51	이성교제 경험		1

〈표 3-7〉 계속

구분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수 (개)	하위문항수 (개)
정책	52	저출산 사회현상 이유	6	1
	53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 현상		1
	54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유무		1
	55	저출산고령화 정책 인지도		1
	56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1
	57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1
성평등의식	58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1	10
일반 가치관	59	청소년의 일반가치관에 대한 조사	1	11
총		계	59	109

4.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은 아래 <표 3-8>, <표 3-9>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11,240명 가운데 남학생은 5,859명, 52.1%이며 여학생은 5,381명, 47.9%이다. 전체 학생의 16.9%인 1,902명이 초등학교 5~6학년생이고 42.3%, 4,755명은 중학생, 나머지 40.8%, 4,594명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의 79%는 인문계고등학생이며 실업계고등학생은 21%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63.6%인 7,134명은 두 자녀 가정의 자녀이고 19.4%인 2,176명은 세 자녀 가정의 자녀, 나머지 12.6%인 1,417명이 한 자녀 가정의 자녀이다. 조사대상 학생의 95.9%인 10,764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의 62.6%인 6,997명이 맞벌이가정의 자녀이며 30.4%인 3,390명은 아버지 홀벌이 가정의 자녀이다. 또한 학생의 9.2%인 1,035명은 주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조사대상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u>지역</u>	대도시	4,940(43.9)
	중소도시	4,950(44.0)
	농촌	1,359(12.1)
<u>성별</u>	남자	5,859(52.1)
	여자	5,381(47.9)
<u>학교급</u>	초등학교	1,902(16.9)
	중학교	4,755(42.3)
	고등학교(인문계)	3,633(32.3)
	고등학교(실업계)	961(8.5)
<u>학교특성</u>	남학교	1,882(16.7)
	여학교	2,142(19.0)
	남녀공학	7,225(64.2)
<u>학년구분</u>	초등학교 5학년	1,020(53.6)
	초등학교 6학년	882(46.4)
	중학교 1학년	1,558(32.3)
	중학교 2학년	1,609(33.8)
	중학교 3학년	1,588(33.4)
	고등학교 1학년	1,270(35.0)
	고등학교 2학년	1,221(33.6)
	고등학교 3학년	1,142(31.4)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93(30.4)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378(39.3)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91(30.2)
<u>희망교육수준</u>	중학교	72(0.6)
	고등학교	631(5.6)
	대학교	8239(73.3)
	대학원	2292(20.4)
<u>형제자매 수</u>	0명	1,417(12.6)
	1명	7,134(63.6)
	2명	2,176(19.4)
	3명	344(3.1)
	4명 이상	147(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8〉 계속

<u>형제자매 수 구성</u>	0명	1,417(12.6)
	남자 1명 여자 0명	4,022(35.9)
	남자 0명 여자 1명	3,122(27.7)
	남자 2명 여자 0명	336(3.0)
	남자 0명 여자 2명	755(6.7)
	남자 1명 여자 1명	1,085(9.7)
	3명 이상	489(4.4)
<u>학생의 종교</u>	불교	2,020(18.0)
	개신교(기독교)	3,502(31.2)
	천주교	956(8.5)
	기타 종교	230(2.0)
	종교 없음	4,531(4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9〉 조사대상학생의 가족 특성

(단위: 명, %)

<u>부모 생존 여부</u>	
모두 살아 계신다	10,764(95.9)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134(1.2)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293(2.6)
모두 안계신다	38(0.3)
<u>부모 결혼 상태</u>	
유배우	9,737(90.9)
이혼, 사별	974(9.1)
<u>부의 학교급</u>	
학교를 안다녔다	23(0.2)
초등학교	335(3.1)
중학교	668(6.1)
고등학교	4,382(40.3)
대학교	3,144(28.9)
대학원	651(6.0)
모르겠다	1,667(15.3)
<u>모의 학교급</u>	
학교를 안다녔다	31(0.3)
초등학교	362(3.3)
중학교	808(7.3)
고등학교	5,481(49.8)
대학교	2,270(20.6)
대학원	295(2.7)
모르겠다	1,757(16.0)
<u>부모간의 관계</u>	
매우 좋은 편이다	3,681(34.8)
좋은 편이다	3,882(36.7)
보통이다	1,968(18.6)
나쁜 편이다	447(4.2)
매우 나쁜 편이다	223(2.1)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378(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9〉 계속

<u>학생-부모관계</u>	
매우 좋은 편이다	4,371(39.3)
좋은 편이다	4,298(38.6)
보통이다	1,859(16.7)
나쁜 편이다	215(1.9)
매우 나쁜 편이다	44(0.4)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335(3.0)
<u>부모 취업상태</u>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6,997(62.6)
아버지만 일 하신다	3,390(30.4)
어머니만 일 하신다	507(4.6)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271(2.4)
<u>학생의 주 양육자</u>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8,220(73.1)
어머니	1,559(13.9)
아버지	191(1.7)
친할머니(외할머니)	1,035(9.2)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46(0.4)
형제자매	32(0.3)
이웃	22(0.2)
도우미 아주머니	30(0.3)
기타	112(1.0)
<u>조부모 동거여부</u>	
예	1,987(17.7)
아니오	9,256(82.3)
<u>가구 경제상태</u>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16(1.9)
잘 사는 편이다	1,538(13.7)
보통이다	7,229(64.3)
못사는 편이다	1,655(14.7)
매우 못사는 편이다	164(1.5)
모르겠다	434(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제 2절 청소년 가족 및 성평등의식 조사 결과

1. 학생의 가족관련 태도

이번 조사에서 학생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4년 한국사회 이혼율이 세계 2위라는 보도와 함께 한국가족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최근 출산을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로 그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가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가족의 다양성 인정,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출현 등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사회, 즉, 사회적 관용성 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할 때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가족영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주로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3-10>을 보면, 6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용성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3-10>에 나타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하는 형태로 조정된 것이다. 학생들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 한정하는 폐쇄적인 태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하다. 학생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낀 항목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것이다. 전체 학생의 21.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청소년들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낯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거부감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혼 가족에 대한 태도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표 3-10> 가족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계	명	평균 점수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4.1	42.2	26.7	7.0	100.0	(11,239)	2.1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42.4	36.0	17.4	4.2	100.0	(11,232)	1.8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9.1	19.8	42.5	28.6	100.0	(11,233)	2.91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14.7	26.5	44.9	13.8	100.0	(11,229)	2.58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6.4	40.2	26.3	7.1	100.0	(11,232)	2.14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15.6	23.1	39.9	21.4	100.0	(11,237)	2.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1>부터 <표 3-16>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를 학생의 성별, 학교급 별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성별 비교는 t-test, 학교급 비교는 ANOVA 테스트와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분석 방법으로 집단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각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다양한 가족 형태 6가지 항목 모두에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는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성별 태도에선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거 가족에 대해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성규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즉,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규범의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나 동거 등에 대해선 여성들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과 남학생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과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목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혈연가족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구성원의 행복에 기반한 생애전략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7.4	22.9	43.3	26.4	2.11(0.88)	-7.19***	
여자	6.5	31.4	40.9	21.2	2.23(0.86)		
학교구분							
초등학교	8.6	20.2	35.0	36.1	2.01(0.95)	33.53***	중, 고(인)-고(실)
중학교	6.8	26.3	42.1	24.8	2.15(0.87)		초,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5.9	29.8	46.9	17.4	2.24(0.81)		초, 중
고등학교(실업계)	8.6	32.4	37.5	21.5	2.28(0.90)		초, 중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4.0	14.4	36.8	44.8	1.78(0.83)	-7.61***	
여자	4.3	20.7	35.7	39.3	1.90(0.87)		
학교구분							
초등학교	3.0	11.4	30.5	55.1	1.62(0.80)	72.12***	중-고(실), 고(인)
중학교	4.0	15.3	37.6	43.1	1.80(0.84)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4.9	22.6	37.5	34.9	1.98(0.88)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1	19.5	35.8	40.7	1.87(0.87)		초,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22.9	40.8	23.6	12.7	2.74(0.95)	-20.68***	
여자	34.8	44.6	15.7	4.9	3.09(0.83)		
학교구분							
초등학교	31.2	34.3	20.4	14.2	2.83(1.03)	12.66***	중
중학교	31.5	42.1	17.8	8.7	2.96(0.92)		초-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4.6	47.4	21.4	6.6	2.90(0.85)		중
고등학교(실업계)	25.2	42.9	22.1	9.9	2.83(0.92)		중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11.5	42.4	28.1	18.0	2.47(0.92)	-13.75***	
여자	16.4	48.4	24.8	10.4	2.71(0.86)		
학교구분							
초등학교	8.1	29.0	31.9	31.0	2.14(0.95)	270.53***	중,
중학교	13.2	42.5	28.9	15.4	2.53(0.91)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16.7	55.9	21.4	6.0	2.83(0.77)		초,
고등학교(실업계)	17.3	49.9	23.7	9.1	2.75(0.85)		고(인)-고(실)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8.8	29.3	38.9	23.1	2.24(0.90)	11.70***	
여자	5.2	23.2	41.9	29.7	2.04(0.86)		
학교구분							
초등학교	20.7	31.6	25.6	22.2	1.88(0.85)	90.62***	중,
중학교	6.7	24.8	41.6	26.9	2.11(0.88)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8.0	31.9	39.7	20.4	2.28(0.88)		초,
고등학교(실업계)	10.7	29.5	37.3	22.4	2.29(0.93)		고(인)-고(실)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1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18.4	38.6	24.4	18.6	2.57(0.99)	-11.94***	
여자	24.2	41.9	21.8	11.9	2.79(0.95)		
학교구분							
초등학교	20.7	31.6	25.6	22.2	2.51(1.05)	43.89***	중, 고(인)
중학교	21.6	39.4	22.9	16.1	2.66(0.99)		초-고(실),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22.5	45.6	21.4	10.4	2.80(0.90)		초-고(실), 중
고등학교(실업계)	16.2	40.1	26.1	17.6	2.55(0.96)		중,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체 학생의 31.6%가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23.3%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의 28.3%가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6.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전체 학생의 59.9%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른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더욱 허용적이다. 여학생의 경우 64.4%가 다양한 가족형태가 개인의 불행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반면 남학생은 55.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족형태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3-1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생각 ¹⁾					명	x ²
	①	②	③	④	계		
전체	31.6	23.3	28.3	16.8	100.0	(11,213)	
성별							
남자	29.2	24.8	26.5	19.5	100.0	(5,837)	102.1***
여자	34.2	21.8	30.2	13.8	100.0	(5,363)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6.3	28.7	13.5	21.5	100.0	(1,896)	606.5***
중학교	34.7	22.4	24.2	18.7	100.0	(4,728)	
고등학교(인문계)	25.5	21.1	41.8	11.6	100.0	(3,626)	
고등학교(실업계)	30.2	25.5	26.8	17.5	100.0	(962)	

† p<0.1,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②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③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④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은 요즘 들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들은 가족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가족관계 측면의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18〉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이유에 대한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 ¹⁾					계	명	χ^2
	①	②	③	④	⑤			
전체	59.3	4.3	4.1	16.0	16.2	100.0	(11,173)	
성별								
남자	50.7	5.3	5.2	18.3	20.4	100.0	(5,813)	385.0***
여자	68.7	3.3	3.0	13.5	11.6	100.0	(5,350)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51.9	3.9	6.4	14.5	23.2	100.0	(1,878)	203.5***
중학교	57.3	5.0	4.5	16.6	16.5	100.0	(4,716)	
고등학교(인문계)	65.6	4.0	2.8	15.7	11.9	100.0	(3,620)	
고등학교(실업계)	59.8	2.9	3.1	16.8	17.3	100.0	(95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②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③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 ④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⑤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이 가족에 관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관한 것과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밖에 ‘가족내 남녀간 역할 평등’에 대한 내용과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절반이 채 안되는 빈도로 순위가 높았다.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인 가족 관련 수업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일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고등학생일수록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표 3-19> 가족에 관해 배운 내용(복수응답)(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 ¹⁾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76.9	71.7	35.2	47.8	41.4	46.4	37.7	6.8	3.6	(11,238)
성별										
남자	77.6	66.5	33.4	42.1	39.1	43.6	34.8	8.4	4.6	(5,852)
여자	76.1	77.4	37.2	53.9	43.9	49.4	40.9	5.0	2.4	(5,377)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81.9	55.2	20.1	31.5	16.8	43.4	24.3	8.5	3.3	(1,899)
중학교	80.8	73.7	32.9	43.9	46.3	51.0	37.5	6.6	3.3	(4,749)
고등학교(인문계)	71.5	80.4	47.3	64.7	47.0	42.8	48.7	6.1	0.4	(3,630)
고등학교(실업계)	67.4	61.7	30.6	35.3	44.7	43.5	23.7	6.6	6.1	(961)

주: 1)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③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⑤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⑥ 가족과 이웃의 관계,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⑧ 기타, ⑨ 배운적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3-20>이다. 전체 학생의 45.8%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한 반면, 두 번째로 응답 빈도가 높은 항목은 ‘갈등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비판적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비판적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족관련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증하듯,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3-20〉 가족에 관한 내용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의 생각 ¹⁾						계	명	χ^2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2.5	45.8	6.2	17.1	13.7	4.7	100.0	(10,786)	
성별									
남자	11.4	49.4	6.9	15.3	11.5	5.4	100.0	(5,535)	123.2***
여자	13.6	42.1	5.4	18.9	16.0	4.0	100.0	(5,241)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2	66.5	6.8	9.3	8.3	5.8	100.0	(1,820)	927.0***
중학교	9.9	48.4	7.8	15.0	13.7	5.2	100.0	(4,571)	
고등학교(인문계)	20.8	33.3	3.9	23.0	15.5	3.5	100.0	(3,502)	
고등학교(실업계)	11.6	40.0	5.7	19.9	17.4	5.4	100.0	(893)	

† p<0.1,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했다,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⑥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2. 학생의 결혼, 출산 관련 태도

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의 6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2005년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의 60.3%보다 높다. 청소년기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갖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세대차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내부에서 여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2005년 성인조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성인조사의 경우 미혼남성 가운데 71.4%가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반면, 미혼여성 가운데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비율은 49.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응답비율인 2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기존의 결혼관행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가족생활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증일 것이며 청소년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특히 이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 설익은 상태로서 실제 행위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현재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저하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표 3-21>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	명	χ^2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236)	
성별								
남자	22.8	52.7	20.4	1.1	3.1	100.0	(5,850)	649.1***
여자	10.4	46.4	39.1	2.2	1.9	100.0	(5,377)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14.2	52.2	26.7	1.4	5.5	100.0	(1,896)	145.0***
중학교	15.8	50.1	30.4	1.4	2.3	100.0	(4,749)	
고등학교(인문계)	18.6	48.9	29.6	2.0	1.0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20.4	46.0	28.6	1.8	3.1	100.0	(960)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러나 아래 <표 3-2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의 결혼 의사에서는 결혼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혼 의향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학생의 77%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9.1%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표 3-22〉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모르겠다	계	명	χ^2
전체	73.2	6.1	20.7	100.0	(11,222)	
성별						
남자	77.0	4.2	18.8	100.0	(5,844)	118.3***
여자	69.1	8.2	22.7	100.0	(5,369)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61.8	6.4	31.8	100.0	(1,893)	259.8***
중학교	72.0	5.8	22.1	100.0	(4,742)	
고등학교(인문계)	79.7	6.0	14.3	100.0	(3,627)	
고등학교(실업계)	76.9	7.1	16.1	100.0	(959)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아래 <표 3-23>~<표 3-25>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녀별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7.9세,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6.4세로 남녀 연령차는 1.5세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만혼 경향을 지지했다. 또한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경향은 남학생의 경우에 더 발견된다.

<표 3-23>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계	명	평균 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전체	21.7	22.9	33.1	16.6	4.7	1.0	100.0	(10,010)	27.9
성별($\chi^2=408.6^{***}$)									
남자	27.4	24.8	29.9	14.0	3.3	0.6	100.0	(5,780)	27.4
여자	13.9	20.2	37.5	20.2	6.7	1.5	100.0	(4,222)	28.6
학교급구분 ($\chi^2=1,091.6^{***}$)									
초등학교	34.7	27.4	27.0	8.4	2.1	0.5	100.0	(1,745)	27.0
중학교	26.7	25.6	31.5	12.3	3.3	0.7	100.0	(4,269)	27.5
고등학교(인문계)	8.7	15.7	38.4	27.5	8.3	1.5	100.0	(3,188)	29.1
고등학교(실업계)	19.3	26.7	34.4	14.1	3.8	1.6	100.0	(808)	28.0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24>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세)

구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계	명	평균 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전체	38.2	32.9	21.1	6.3	1.2	0.3	100.0	(10,112)	26.4
성별($\chi^2=623.0^{***}$)									
남자	50.4	29.2	15.2	4.5	0.6	0.1	100.0	(4,779)	25.8
여자	27.3	36.3	26.4	7.9	1.8	0.4	100.0	(5,324)	27.2
학교급구분 ($\chi^2=701.2^{***}$)									
초등학교	53.1	29.5	12.9	3.6	0.7	0.1	100.0	(1,736)	25.8
중학교	44.0	32.3	17.5	4.9	1.0	0.2	100.0	(4,280)	26.2
고등학교(인문계)	22.3	35.3	30.3	9.8	1.7	0.5	100.0	(3,256)	27.4
고등학교(실업계)	39.4	33.5	20.0	5.3	1.7	0.1	100.0	(842)	26.5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25〉 학교급·학년별·성별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차이

(단위: 평균연령)

구분	전체	초교5	초교6	중교1	중교2	중교3	고교1	고교2	고교3
전체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9	27.1	27.0	27.2	27.6	27.8	28.5	28.9	29.2
여성 이상결혼연령	26.1	25.7	25.8	25.9	26.3	26.4	27.0	27.3	27.5
차이	1.4	1.4	1.2	1.3	1.3	1.4	1.5	1.6	1.7
남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4	26.9	26.7	26.7	27.1	27.0	27.8	28.3	28.7
여성 이상결혼연령	25.8	25.5	25.3	25.4	25.5	25.5	26.0	26.5	26.6
차이	1.6	1.4	1.4	1.3	1.6	1.5	1.8	1.8	2.1
여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8.6	27.3	27.3	27.7	28.3	28.7	29.4	29.7	29.9
여성 이상결혼연령	27.2	25.9	26.2	26.3	26.9	27.2	27.7	27.9	28.3
차이	1.4	1.4	1.1	1.4	1.4	1.5	1.7	1.8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결혼에 대한 태도와 달리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우호적이다. 학생들의 75.2%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경우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비해서 근소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보다 본인의 결혼 의향 응답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보다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응답비율이 더 높다. 전체 학생의 83.9%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표 3-26> 일반적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명	χ^2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성별						
남자	30.8	47.4	13.2	8.6	100.0 (5,852)	202.2***
여자	23.0	48.8	21.8	6.3	100.0 (5,378)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100.0 (1,898)	244.4***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4,752)	
고등학교(인문계)	26.1	49.2	20.8	3.9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33.9	44.0	17.0	5.2	100.0 (960)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27>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모르 겠다	계 명	χ^2
전체	33.8	49.1	6.7	1.1	9.4	100.0 (11,232)	
성별							
남자	34.4	50.1	4.9	0.9	9.7	100.0 (5,855)	69.1***
여자	33.1	47.9	8.6	1.2	9.1	100.0 (5,378)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6.0	54.3	6.3	1.1	12.3	100.0 (1,898)	218.6***
중학교	31.1	50.6	6.1	1.0	11.3	100.0 (4,754)	
고등학교(인문계)	39.5	45.2	8.0	1.1	6.2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41.0	45.7	5.6	1.1	6.6	100.0 (961)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대자녀수는 평균 2.04명으로 성인의 기대자녀수 평균 2.055명과 비슷했다. 남학생의 기대자녀수는 2.1명이었고 여학생의 기대자녀수

는 1.99명으로 여학생의 기대자녀수가 조금 적은 편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대자녀수도 조금씩 증가했다. 한국사회에서 기대자녀수 2명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표 3-28〉 기대자녀 수(출산의향 자녀 수)(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자녀수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6)	2.04
성별($\chi^2=114.8^{***}$)									
남자	6.7	8.9	60.3	19.1	2.2	2.8	100.0	(5,018)	2.10
여자	11.3	9.9	55.4	17.5	4.2	1.8	100.0	(4,710)	1.99
학교급구분($\chi^2=117.8^{***}$)									
초등학교	8.8	12.8	57.8	17.3	2.1	1.3	100.0	(1,591)	1.95
중학교	8.4	9.8	60.4	16.7	2.4	2.3	100.0	(3,999)	2.02
고등학교(인문계)	10.1	7.5	55.3	20.6	3.9	2.6	100.0	(3,285)	2.09
고등학교(실업계)	7.5	8.0	56.5	19.0	5.8	3.1	100.0	(862)	2.17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의 39.1%만이 남아 선호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아에 대한 선호가 있는 편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들 선호 의사는 감소하였다. 다른 성인대상 조사에서 여성일수록 남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표 3-29> 성별 이상 자녀수 성 선호 여부(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39.1	60.9	100.0	(9,274)	
성별					193.9***
남자	45.7	54.3	100.0	(4,929)	
여자	31.6	68.4	100.0	(4,341)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49.3	50.7	100.0	(1,518)	104.1***
중학교	39.8	60.2	100.0	(3,859)	
고등학교(인문계)	33.8	66.2	100.0	(3,066)	
고등학교(실업계)	37.1	62.9	100.0	(831)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조사대상의 성평등의식 실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240명의 성평등의식을 살펴 보기 위해서 성평등의식 관련 10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포함한 성평등의식 설문항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김양희 외, 2002) 가운데 ‘가족영역’과 ‘직업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이다.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세~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³⁾. 이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배리믹스

3) 이 검사지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것은 ‘가정영역’, ‘학교영역’, ‘직업영역’, ‘사회문화영역’이다. 4개 영역에 각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전체 검사지는 80문항이며 4개 영역에 각각 5문항씩 구성된 ‘축약형 질문지’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질문지 가운데 ‘가정영역’과 ‘직업영역’의 10문항을 청소년가치관조사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검사지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표준 마련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검증, 확정된 것이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30>과 같다.

<표 3-30> 가족생활척도와 직업생활척도의 요인행렬

가족 영역	요인1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관	요인2 성평등 가족관
1)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377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544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627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530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613
직업 영역	요인1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	요인2 성평등한 직업관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629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604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448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566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사분담이나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다.

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허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은 사안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보내는 반면, 직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절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3-31>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점수가 높은 상위 4 순위까지의 문항이 모두 가정영역의 문항이다. 가장 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이다. 그밖에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이며 그 다음이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이다.

이에 비해 직장 영역의 문항에서는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문항과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전체 10문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가정영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표 3-3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006년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큰 항목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문항과 그 다음

으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문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현재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안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문항과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항으로 이 두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아들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목과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경제불황과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남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다시 미혼층의 증대와 결혼 연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을 결과하였다. 경제 불황 및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불안정성을 일상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투자를 유인하여 교육년환을 연장시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의식과 결합되면서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 부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은 한 단계 뛰어넘은 먼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측면과 태도 측면 사이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이런 해석은 유보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직장영역에 비해 가정영역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족의 일로 낭만화시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이 한층 부각된 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저출산 위기 상황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내용과 전략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1>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평균
1)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02	2.2	7.6	44.8	45.3	3.33
	2006	3.7	10.5	37.4	48.4	3.3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2002	40.4	48.5	8.0	3.0	3.26
	2006	45.3	44.1	8.1	2.5	3.3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2002	44.3	45.8	7.4	2.0	3.31
	2006	53.1	37.9	7.1	2.0	3.42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002	5.8	31.3	38.0	24.6	2.81
	2006	12.0	34.6	38.0	15.3	2.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002	41.8	50.4	6.5	1.3	3.33
	2006	51.1	40.5	6.6	1.8	3.41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002	2.0	16.7	48.0	33.2	3.12
	2006	3.5	17.5	43.3	35.6	3.11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002	7.3	22.3	47.9	22.2	2.84
	2006	11.0	25.4	37.6	26.0	2.79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2002	3.8	20.0	41.8	34.3	3.06
	2006	6.7	21.2	36.8	35.3	3.01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002	39.6	48.4	9.2	2.8	3.25
	2006	45.8	39.7	10.8	3.7	3.28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2	2.3	8.5	44.3	44.7	3.31
	2006	6.6	14.2	37.6	41.6	3.14

주: 1)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이하 동일).

자료: 1)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개발」, 200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특히 <표 3-32>~<표 3-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평등 설문문항 10개 모두에서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두 문항 즉, 가계계승을 위한 이들의 필요성 문항과 허드렛일은 여직원이 적합하다는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시기부터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3-32〉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5.6	15.8	45.3	33.3	3.06(0.84)	-34.30***	
여자	1.7	4.8	28.8	64.7	3.56(0.67)		
학교구분							
초등학교	6.0	14.7	38.2	41.0	3.14(0.88)	51.33***	중-고(실), 고(인)
중학교	3.6	11.1	38.4	46.9	3.29(0.80)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2.5	7.5	35.5	54.5	3.42(0.74)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4	11.4	37.6	46.6	3.27(0.82)		중,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3〉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30.6	53.4	12.2	3.8	3.11(0.75)	-33.73***	
여자	61.2	34.0	3.8	1.0	3.55(0.62)		
학교구분							
초등학교	49.6	38.4	7.9	4.0	3.34(0.79)	6.94***	중-고(실)
중학교	3.6	11.1	38.4	46.9	3.30(0.74)		초-고(인)
고등학교(인문계)	44.8	47.5	6.3	1.4	3.36(0.66)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2.5	43.6	11.0	2.9	3.26(0.76)		초-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4〉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38.4	47.9	10.7	3.0	3.22(0.75)	-32.60***	
여자	68.9	27.1	3.1	0.9	3.64(0.59)		
학교구분							
초등학교	56.2	31.3	8.9	3.6	3.40(0.80)	2.38†	
중학교	52.7	37.6	7.6	2.2	3.41(0.72)		
고등학교(인문계)	52.0	41.6	5.4	1.1	3.44(0.65)		
고등학교(실업계)	53.2	37.9	7.4	1.5	3.42(0.71)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5〉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17.9	42.7	31.4	8.0	2.29(0.85)	-34.93***	
여자	5.6	25.9	45.3	23.2	2.86(0.84)		
학교구분							
초등학교	22.6	38.0	29.4	10.1	2.27(0.92)	143.45***	중·고(실), 고(인)
중학교	11.9	37.1	36.8	14.3	2.53(0.88)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6.4	29.7	43.8	20.2	2.78(0.84)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13.9	35.3	39.0	11.8	2.49(0.88)		초,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6〉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37.1	50.8	9.4	2.6	3.22(0.72)	-30.20***	
여자	66.3	29.3	3.5	0.9	3.61(0.60)		
학교구분							
초등학교	50.2	37.4	9.0	3.3	3.34(0.78)	20.20***	고(인)
중학교	50.5	40.2	7.2	2.1	3.39(0.71)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53.7	41.1	4.4	0.7	3.48(0.62)		초·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6.0	45.3	7.0	1.7	3.36(0.69)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7〉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5.2	23.9	50.7	20.2	2.86(0.79)	-35.50***	
여자	1.7	10.6	35.3	52.3	3.38(0.74)		
학교구분							
초등학교	6.3	23.0	41.1	29.6	2.94(0.88)	44.41***	중, 고(인), 고(실)
중학교	3.5	16.9	43.8	35.9	3.12(0.81)		초, 고(인), 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1	15.2	43.1	39.6	3.20(0.77)		초, 중, 고(실)
고등학교(실업계)	3.9	18.8	46.3	30.9	3.04(0.81)		초, 중,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8〉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14.6	32.1	39.4	13.9	2.53(0.91)	-30.70***	
여자	7.2	18.2	35.6	39.0	3.06(0.93)		
학교구분							
초등학교	17.4	27.2	33.5	22.0	2.60(1.01)	52.26***	중-고(인)
중학교	10.1	24.6	38.0	27.3	2.83(0.95)		초-고(실)
고등학교(인문계)	8.2	24.2	39.3	28.4	2.88(0.92)		초-고(실)
고등학교(실업계)	14.5	31.1	36.66	17.8	2.58(0.94)		중-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39〉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9.2	28.4	42.7	19.7	2.73(0.88)	-34.75***	
여자	4.0	13.5	30.3	52.2	3.31(0.85)		
학교구분							
초등학교	12.3	26.0	38.3	23.4	2.73(0.96)	103.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6.8	21.1	37.9	34.2	2.99(0.90)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3.7	18.0	34.8	43.4	3.18(0.86)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7.0	24.7	35.8	32.5	2.94(0.92)		초,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0〉 여자가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27.0	52.2	15.8	5.0	3.01(0.79)	-37.97***	
여자	66.0	26.2	5.4	2.4	3.56(0.71)		
학교구분							
초등학교	41.4	37.3	14.8	6.5	3.13(0.90)	32.63***	중·고(실), 고(인)
중학교	45.6	39.6	10.7	4.1	3.27(0.81)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48.8	40.5	8.5	2.2	3.36(0.73)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43.1	42.0	12.1	2.8	3.25(0.77)		초,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1〉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8.6	18.9	46.5	26.0	2.90(0.89)	-30.57***	
여자	4.5	9.2	28.0	58.4	3.40(0.83)		
학교구분							
초등학교	12.3	21.1	36.7	29.9	2.84(0.99)	121.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6.5	15.4	37.5	40.5	3.12(0.90)		초, 고(인)
고등학교(인문계)	3.8	9.6	37.1	49.5	3.32(0.80)		초, 중·고(실)
고등학교(실업계)	6.8	13.2	41.5	38.5	3.12(0.88)		초,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일은 집안에서의 “성평등한 가사분담 및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성별 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평등 의식 문항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데 비해 성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학교급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06년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남녀의 역

할이 따로 없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성평등한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분절됨으로써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같이 협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집안에서 가정일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61.4% 가량이 부모님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남학생의 62.5%가 부모님의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진다고 응답한 반면 이와 같이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은 53.8%이다.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⁴⁾.

〈표 3-42〉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χ^2
전체	17.0	41.4	31.0	10.7	100.0	(10,449)	
성별							
남자	18.5	44.0	28.8	8.7	100.0	(5,432)	94.6***
여자	15.3	38.5	33.4	12.8	100.0	(5,019)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7.0	45.7	20.7	6.6	100.0	(1,794)	411.1***
중학교	16.9	43.9	30.6	8.5	100.0	(4,434)	
고등학교(인문계)	12.8	35.4	37.3	14.5	100.0	(3,397)	
고등학교(실업계)	12.6	42.9	29.4	15.1	100.0	(833)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 4)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유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사내용 가운데 조사대상학생의 부모 연령을 알 수 없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가사분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연령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모집단의 코호트효과가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래 <표 3-43>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⁵⁾ 모든 문항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이 공평할수록 성평등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회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들의 성평등 의식부터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3>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상관관계계수 (유의도)
1)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080***
2)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034**
3)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000
4)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132***
5)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040***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94***
7)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68***
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84***
9)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055***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7***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5)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부모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과 매우 낮은 학생의 찬성 여부가 양극화되어서 상관관계계수가 무의미하게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chi^2=285^{***}$ 으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 사람들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ugen, 1994). 예를 들어, Clary 등(1994)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과 부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탈북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를 반영하는 총 7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이 세 가치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로 나타난 가치들이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더불어 사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의 2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로운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김혜숙, 2002; 박수미외, 2004)에 따르면,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연구에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표 3-44>~<표 3-53>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권력 지향적 가치’였다. 반면 가장 미약한 일반 가치는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였다. ‘보편주의 가치’도 미약한 편으로 청소년기가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생애 단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편주의 가치가 성평등 의식에 정(+)적 요인이 되고 권력 가치가 부(-)적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우려되는 바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치관의 성별 통계치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편주의 가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권력 가치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 가치가 늘어나고 권력가치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

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가 증대하고 권력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 보다 상위의 평등 의식 고취에 현재의 교육현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44〉 더불어 사는 삶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55.6	38.1	5.2	1.1	1.52(0.65)	1.79†	
여자	54.9	40.8	4.0	0.3	1.50(0.59)		
학교구분							
초등학교	67.4	28.4	3.3	0.8	1.38(0.59)	39.30***	중, 고(인)-고(실)
중학교	55.7	39.0	4.3	1.0	1.51(0.63)		초,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49.8	44.5	5.3	0.4	1.56(0.61)		초, 중
고등학교(실업계)	53.6	38.7	6.5	1.3	1.56(0.63)		초, 중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5〉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53.9	36.7	7.7	1.7	1.57(0.71)	2.27*	
여자	53.7	38.9	6.7	0.7	1.54(0.65)		
학교구분							
초등학교	49.8	37.2	10.7	2.3	1.65(0.76)	16.45***	중-고(인)-고(실)
중학교	54.2	37.4	7.1	1.3	1.56(0.68)		초
고등학교(인문계)	55.4	38.2	5.8	0.6	1.52(0.64)		초
고등학교(실업계)	61.5	33.1	4.2	1.2	1.55(0.67)		초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6〉 자유로운 생활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66.9	28.8	3.5	0.8	1.38(0.60)	3.45**	
여자	68.4	28.9	2.4	0.3	1.35(0.54)		
학교구분							
초등학교	73.3	22.9	3.3	0.5	1.31(0.56)	13.56***	중, 고(실)
중학교	66.9	29.3	3.0	0.8	1.38(0.58)		초-고(인), 고(실)
고등학교(인문계)	67.3	30.0	2.5	0.2	1.36(0.53)		중, 고(실)
고등학교(실업계)	62.7	32.9	3.6	0.7	1.45(0.64)		초-고(인), 중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7〉 인간에 대한 사랑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63.1	31.4	4.4	1.1	1.43(0.63)	5.48***	
여자	66.7	30.0	2.9	0.4	1.37(0.56)		
학교구분							
초등학교	64.9	29.0	5.0	1.1	1.42(0.64)	2.54	
중학교	66.5	29.4	3.2	0.9	1.39(0.60)		
고등학교(인문계)	63.2	32.8	3.5	0.4	1.41(0.58)		
고등학교(실업계)	62.7	32.9	3.66	0.7	1.42(0.60)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8〉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50.3	35.5	12.3	1.9	1.66(0.77)	5.00***	
여자	51.1	39.5	8.6	0.8	1.59(0.68)		
학교구분							
초등학교	54.8	34.2	9.7	1.2	1.57(0.72)	21.10***	중
중학교	49.1	38.0	11.2	1.7	1.65(0.74)		초-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50.0	38.6	10.5	0.9	1.62(0.71)		중
고등학교(실업계)	53.0	36.3	8.8	1.9	1.60(0.73)		중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49〉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30.1	31.0	28.1	10.7	2.19(0.99)	-2.53*	
여자	24.3	35.0	33.0	7.6	2.24(0.91)		
학교구분							
초등학교	28.4	27.9	29.2	14.6	2.30(1.03)	21.10***	초-중, 고(인)
중학교	26.3	31.5	32.6	9.7	2.26(0.95)		고(인)-고(실)
고등학교(인문계)	26.8	35.9	30.8	6.4	2.17(0.90)		고(인)-고(실)
고등학교(실업계)	32.5	38.5	21.4	7.6	2.04(0.92)		초-중, 고(인)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50〉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구분						(단위: %)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성별							
남자	72.2	23.4	3.2	1.2	1.34(0.60)	5.65***	
여자	75.1	22.8	1.8	0.3	1.27(0.51)		
학교구분							
초등학교	75.6	21.0	2.2	1.1	1.29(0.56)	1.25	
중학교	73.4	22.9	2.7	1.0	1.31(0.58)		
고등학교(인문계)	72.8	24.6	2.2	0.4	1.30(0.53)		
고등학교(실업계)	73.1	22.2	4.1	0.6	1.32(0.58)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3-51>은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가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권력 가치는 모든 성평등의식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자기 성취 가치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위에서 우려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 성취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권력 가치지향적인 성향은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각시켜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표 3-51>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보편적가치관	권력지향가치관	자기성취가치관
1) 남자들이 부업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121***	-.084***	.100***
2)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193***	-.029**	.178***
3)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 같이 해야 한다	.205***	-.036***	.175***
4)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065***	-.117***	-.0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226***	-.020*	.204***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65***	-.085***	.063***
7)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10	-.132***	-.008
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44***	-.107***	.039***
9)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61***	.005	.160***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038***	-.107***	.052***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제 4 장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제 1 절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1. 분석 대상과 방법

다양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 과목은 도덕, 사회, 기술·가정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인구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에 초점을 두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평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가족문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 1종 3책, 사회교과서 7종 21책, 기술·가정 10종 30책 그리고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4종 4책, 사회·문화 5종 5책, 기술·가정 10종 10책이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일부 교과서를 선정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교과내용의 목차에 ‘가족’ 관련 사항이 중심주제로 설정된 과목을 설정하였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외에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어 같은 교과 과목에 대해 학년별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별하고자 하였다.⁶⁾

포괄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살펴보되, 이와 연관된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재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6) 질적 연구를 위해 선별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1학년(지학사 2001), 3학년(지학사 2003). 중학교 사회 교과서 1학년(금성출판사, 2001), 2학년(금성출판사 2001), 3학년(지학사 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학년(동화사 2001), 2학년(교학연구사 2002), 3학년(홍진 P&M 2003).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대한교과서 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법문사 2003).

의 초점은 가족의 형태의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함께 포괄해서 성평등한 가족 문화에 대한 교과서의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도모하는데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구성과 해체를 다룬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연관되는 가족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분업, 세대간 평등,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을 키워드로 삼아 분석을 시도했다. 셋째, 미래의 가족문화 변화를 지향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계라는 범주를 통해 교과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2. 성평등한 가정문화 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가. 가족의 구성과 해체

먼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족의 ‘형식’을 검토했다. 형식의 측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나 규모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성평등의 내용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가족형성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미래의 결혼에서 여성 배우자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가족 형성의 기초로서 전제하는 혼인관계 구성에서부터 양성이 균등한 구성을 이룰 수 없다는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성평등한 형식적 구성 자체를 비판적으로 전망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활동하기>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까?

초등학교 교실 모습: 남자 아이 짝들이 많다.

포스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부감은 모자라고 신랑감은 남아돌고
중2 사회(교학사, 2002:152)

가족계획 표어: 1991년.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궁없는 우리 세대
중3 사회(동화사, 2001:158)

<지리 전망대> 신부감이 모자란 대요: 성비 불균형
중3 사회(동화사, 2001:175)

교과서 전체 서술에서 가족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결혼제도는 기본적인 삶의 절차로 강조된다. 관련 의식이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법적 신고절차를 강조하여 결혼의 법적내용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서 양성에 대해 법률이 불평등한 측면, 혹은 성평등하게 결혼에 관한 법이나 제도가 변모하는 방식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법률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생활과 탐구활동>

삼화: 결혼, 출생, 이사 등등

출생, 결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중2 사회(디딤돌, 2006:174)

[그림 4-1] 세계의 결혼 의식



주: 1) 문화의 다양성 각 나라나 민족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된 의식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료: 중2 사회(금성출판사, 2001:171)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 기술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특히 삽화에서 예절 바른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를 묘사하는 경우에 확대가족의 삽화를 제시하고, 핵가족의 모습에는 노인문제를 의미하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핵가족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확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삽화를 통해 단편적인 이미지로서만 제시함으로써, 그 변화를 통해 향후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람직한 형태처럼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확대가족의 ‘가계도’를 여전히 양계부모가 아닌 부계 중심으로 제시하여 성평등한 가계도를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둘러싼 기본적인 형식적 틀을 성평등이 아닌 부계중심으로 인식하게 할 한계도 보인다.

“확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조상들은 가족 구성원 산의 두터운 가족애를 바탕으로 서로 아끼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의식주의 해결에서부터 자녀교육,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중3 도덕(지학사, 2003:134~135)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략)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서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중1 도덕(지학사, 2001:158)

[그림 4-2] 확대가족의 모습



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154)

[그림 4-3] 가족형태 변화의 이중성



“오늘날 우리 가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서양의 현대적 경향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있지만, 서양과 같이 철저한 핵가족이 아니라 확대가족적인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중략)

자료: 중3 도덕(지학사, 2003:137)

<탐구활동> 가계도.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 고모, 작은 아버지, 작은 고모, 오빠와 나.
중3 사회(디딤돌, 2002:169)

2) 가족규모, 형태의 변화

가족에 대한 사례나 보기를 들 때, 전체적인 서술과 삽화에서 3인 가족과 4인 가족을 전형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상 동거부부,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입양가정, 조부모 가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이삼식 외, 2005),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균형있게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성평등한 가족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방향제시가 없어 아쉽다.

<사진> 가족 간의 대화와 토론을 주제로 부모와 남녀 2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사진 제시, 웃고 있음.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13)

<사진> 가계 소비활동을 통해 가족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한다. 4인 가족: 부부, 큰아들, 작은 아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70)

<삽화> 경제 주체 간의 경제활동. 가계: 3인 가족, 딸.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71)

우리 또래 중 형제가 3명 이상인 친구를 찾아보자.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자녀수는 1.42명에 불과하다. (중략) 최근에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과 독신자 수가 늘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중3 사회(교학사, 2002:139)

3인 가족 이외에는 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양자와 양녀를 언급한 내용이 간혹 있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언급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언급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행하다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부모와 자식이 있는 핵가족 내에서의 관계로 상정하거나 ‘잘 익은’ 토마토와 ‘건강한’(4인 가족)을 공통점을 통해 비교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 혹은 ‘덜 성숙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는 3인 가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통해서도 재현될 수 있는 성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형식의 차원에서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入養)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혼인과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부부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양자(養子) 또는 양녀(養女)로 받아들인 자녀, 즉, 입양관계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중략)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한데 모여 의식주 등의 공동생활을 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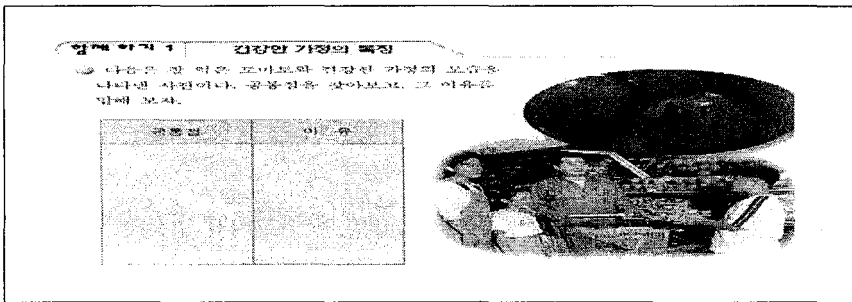
중1 도덕(지학사, 2001:156)

<활동하기> 방송국 방영 프로그램 읽고 활동해보기.

올해 일흔 여덟의 할머니는 취로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혼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2 사회(교학사, 2002:150)

[그림 4-4] 4인 가족의 모습



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162)

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에서 살펴본 형식의 측면과 함께 이번에는 ‘내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제약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성별분업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진단과 서술을 살펴본다. 성별분업이 일차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이 세대간에 어떤 방식으로 성평등하게 전달되는지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사회의 가족내 문화에서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 혹은 노인부양이나 돌봄노동 같은 상황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성별분업

대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서술한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삽화에서는 고정된 성역할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을 ‘집안’의 존재로 그린다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 특히 ‘주부’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어머니는 사과를 깎으며 집안일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소비’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항상 여성만을 등장시키는 성별분업적 서술양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역할분담을 그 자체로 ‘문제’거리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는 내용도 눈에 뜨인다. 더 나아가 여성의 본업을 ‘집안 일’로 전제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오늘날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부터 알아보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부부관이 무너지고,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평등한 부부 관계가 강조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를 두고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밖에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관이 바뀌면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3 도덕(지학사, 2003:138~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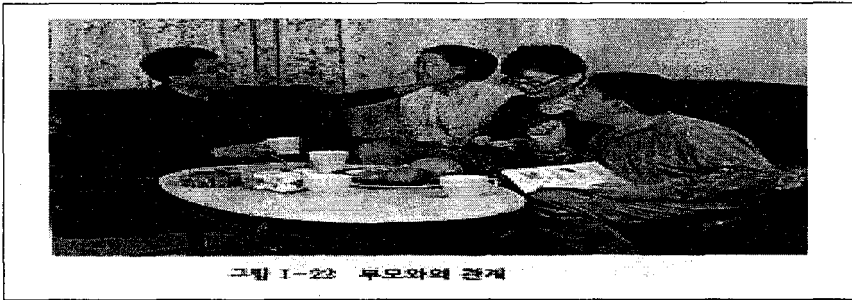
〈TV속 성역할 변화〉

1985년 방영된 TV 드라마 및 광고에 등장한 2,600여 명을 성 역할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중략) 남녀별 업무 담당은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중략) 가정 내의 역할도 여성이 가사 수행을 전담하고 있었다.

최근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의 경우, 성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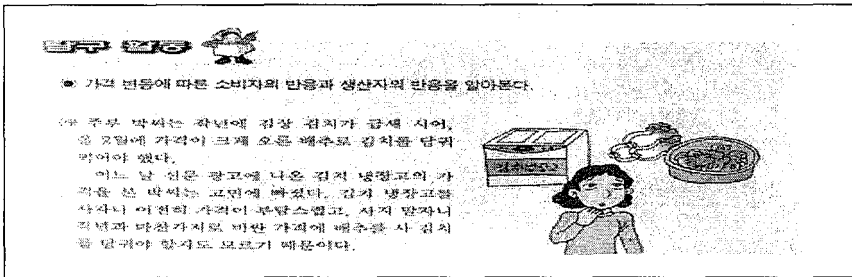
[그림 4-5] 가족 내 성별분업



자료: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37)

〈삽화〉 가정에서 남자는 쉬면서 아이들과 놀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림.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68)

[그림 4-6] 소비와 연관되는 여성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85)

〈삽화〉 옛날 부엌, 3인 가족, 엄마는 부엌일, 아빠, 딸.
중3 사회(디딤돌, 2002:108)

〈삽화〉 3인 가족 부부: 부부, 아들(엄마는 밥 푸고 있음, 웃음)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43)

〈그림〉 모두 웃고 있음. 엄마가 설거지 하고 딸이 그릇을 나르는 장면, 아버지 뒤에서 웃고 있음. 남동생이 공부하고 누나가 간식 가져다주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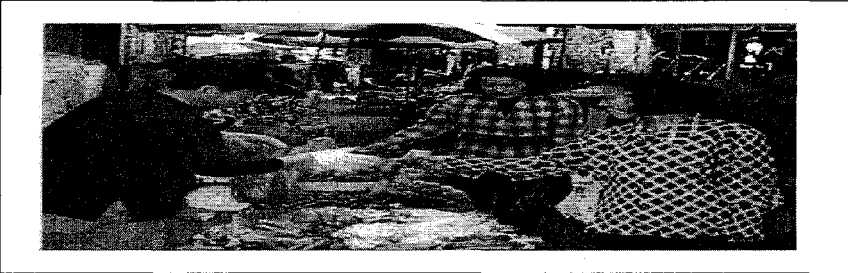
중1 기술·가정(홍진PM, 2001:25) [나와 가족과의 관계]

〈심화활동〉 지위에 따른 올바른 역할 수행하기

사례3. 정○○씨는 초등학교 아들들 둔 어머니이자 직장인이다. 그녀는 바쁘지만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 외의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곤한다.

중2 사회(교학사, 2002:153)

[그림 4-7] 시골장터의 모습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72)

[그림 4-8] 주부로 묘사되는 여성



● 어느 주부의 소비 생활 체험단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구입을 탐색한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는 바쁘지만 되면 아이들의 장기에 건립자와 하 무중요 보일러를 적 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가 장 주부가 저온형 냉방비를 아껴서 전기 노면 물을 위해 보 년에 봉사 활동을 해 소고 있다 는 소식에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을겨울에는 아이들에게 내의 위에 피크스를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59)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별분업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삽화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상에 서로 편차가 심하여 일관성이 없다. 예를 테면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면서도 삽화나 사례에서는 ‘재택근무’하는 여성이 제시된다. 그리고 그 여성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다. 이러한 재현은 여전히 여성을 집안 ‘내’의 존재로 남성을 집안 ‘밖’의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는 보다 큰 틀에서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남성과 부엌일은 별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성별분업 원칙을 그다지 문제 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는 방식에서만 성평등한 성별분업이 언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로 항상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제시된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의 원래적인 일이라는 고정된 성별분업을 다시 한번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남성의 돌봄노동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계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일과 시간: 가사노동의 종류〉

1. 자녀교육(모자가 공부하는 모습) 2. 엄마가 세탁.
3. 아빠가 육아 5. 엄마가 청소 6. 아빠가 식사준비

중2 가정(교학사, 2002:201)

요즈음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바꾸고, 남녀가 함께 나누어서 일하는 풍토를 통해 바람직한 가정 문화를 이루어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삽화〉 가전제품 덕분에 여성이 음악 들으며 앉아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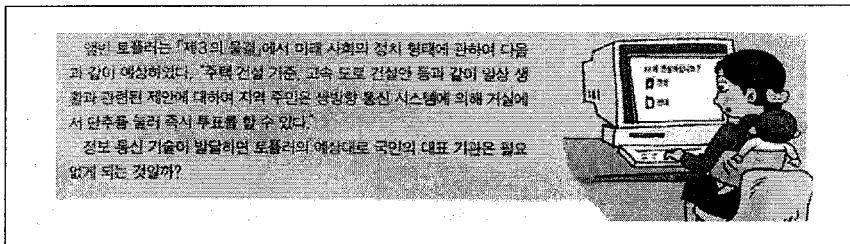
중2 가정(금성출판사, 2002:202)

〈탐구활동 사례〉

인터넷을 이용해 재택근무 하는 양은아씨 아들 1명이 있고,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 사이에 근무함.

중3 사회(디딤돌, 2002:60)

[그림 4-9] 아이를 등에 업고 컴퓨터를 하는 여성



주: 1) 여성의 정보이용에 대한 그림으로 아이를 업고 있는 여성을 예시.

자료: 중2 가정(교학사, 2002:201).

〈사진〉 여성이 재택근무.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45)

〈탐구활동, 남자가 되어보자, 여자가 되어보자〉

만화. 4인 가족: 부부, 큰딸, 아들

엄마: 곧 추석에 다가오는데 3일간 꿈작 못하고 음식 만들 생각을 하니 아찔해요

아빠: (신문보며) 힘든 건 알지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소. 그렇다고 남자가 부엌일을 할 수는 없으니.

엄마: 막 결혼을 했을 때는 당신이 부엌일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제는.. 당신 맘이 변했어요.

(중략) 아빠: 그 때는 엄마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엄마: 너를 낳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라

고 하더라.

딸 : 아빠, 회사에서는 왜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승진도 잘 못하고 아기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냐 하니 말야.

아빠: 다 그런건 아니지만, .. 상당수의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지.

남동생: 그러고 보니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야. 남자란 이유로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말야.

누나 : 다행이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니? 그리고 앞으로 네가 아들만 낳으란 보장 있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잘 되어야 너도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1. 우리 사회에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자.

2.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진정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중1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60~162)

[그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경제적 선택.

육아와 일 사이에 고민하는 알뜰씨- 휴직 결정.

중 3사회(동화사, 2001:46)

가족과 사회의 연관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성별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적인 사례 제시가 다루어지는 내용도 있어 긍정적이지만, 주로 '서술' 내용에서만 다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직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진행되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한 설명도 있어 우려가 된다. 성평등 사상의 확대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서술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대안을 제시하여 성평등의 미래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팀으로 보고 구성원을 전체로 하여 가족 내 일의 분업을 설명하는 일부 서술의 경우에는 보다 큰 의미의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구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영이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나영이 부모님과 달리 언니는 직장
에 나가 돈을 벌고, 형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한다. 나영이 언
니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한다”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
니고, 요즘에는 이러한 가치관이나 생활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139)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청소는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청소 시간이나 다른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점
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팀으로 보고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각자 자기의 방은 스스로 책임지
고, 부엌, 거실, 화장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장소별로 청소를 분담하거
나,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맡아 하는 것이다. 한 주는 설거지, 다음 주는
화장실 청소 등 가족끼리 교대로 청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때는 대화를 통
해 연령과 개인에 적합하게 집안일을 배분하여야 한다.

중3 기술·가정(홍진 P&M, 2002:202)

[그림 4-10] 가사노동 분담 및 여성의 사회진출



남성과 여성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다.

자료: 중3 도덕(지학사, 2003:175)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팎에서 남녀에 대한 양육이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평등 사상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많아졌으며, 그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직업 선택과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차별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여성들이 경찰대학, 해군사관학교 등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빗장이 걸려있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 여성의 직업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남성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거꾸로 그 동안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깊게 존재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여성만의 직업이나 남성만의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 구분의 근거는 무엇이며, 타당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3 도덕(지학사, 2003:123)

집안일은 반복적이고 가족원 모두를 위한 일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을 계획할 때에는 집안일의 내용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여가 시간을 고려하여 집안일 하는 시간을 배분한다.

중2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1: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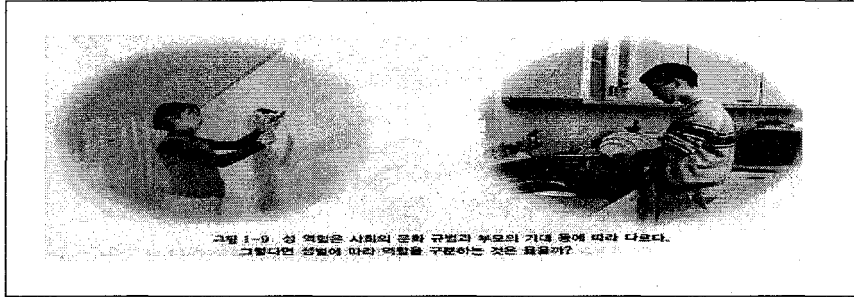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양성성의 성 역할, 즉,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성을 함께 지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융통성있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중1 기술·가정(홍진PM, 2001:13)

요즘에는 법률과 정치, 정책적 측면에서도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좋은 어머니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처럼,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중3 도덕(지학사, 2003:182)

[그림 4-11]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자료1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20)

<21세기 남녀평등현장>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 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 매체는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183)

2)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부부 사이의 성평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평등한 관계가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평등’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적으로 세대간 차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서술 기조가 잡혀 있다. 이전의 대가족제도에서는 부부세대와 자녀세대의 구분을 통해 자녀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도모하는 맥락에서 이 내용이 중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 1자녀 중심의 가족구성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 기조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차이’를 강조하여 갈등을 내재적인 것으로 고착화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세대는 부모 세대와 살아온 경험이 다르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생활이 넉넉해지고 지식이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부모보다는 친구들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세대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대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대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돼” 이 말처럼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2 사회(교학사, 2002:142)

〈삼화〉 엄마, 오빠, 여동생(엄마 신문보고 아이들 TV 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기성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가치관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세대 차이는 세대 간에 불신과 갈등, 더 나아가 단절을 낳기도 한다. (중략) 세대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각자가 상대 세대가 자신과 똑같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탐구활동〉 다음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특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기성세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타인을 의식한다.

신세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한다. 자신의 감정을 중시한다.

1. 위에 제시된 특성 외에 다른 특성을 찾아 빈 칸을 채워보자.
2.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특성을 지닌 장, 단점에 대해 토의해보자.
3.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대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중2 사회(디딤돌, 2006:153)

전체적인 가족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평등하고 수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거나 혹은 한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관계를 바람직한 것처럼 제시하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 가족 내에서 개인의 선택과 ‘다수결’의 민주적 절차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은 문제제기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민주’적 방식이 구성원들의 나이 및 세대 간의 평등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녀세대와 부부세대의 갈등을 풀어가는 ‘단란한’ 가정생활에 대한 예시는 흥미롭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집 안’에서의 존재이자, 컴퓨터나 기타 정보에 취약한 존재로 조망함으로써, 세대간 차이에서 어머니라는 역할을 고정시킬 우려도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거나 가족신문 만들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전체 서술에 비추어 다루는 내용의 비중이 소략하고 다소 추상적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중학생이 된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때 청소년은 부모에게 실망하게 되고, 권위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편, 부모는 어릴 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던 자녀가 중학생이 되자 버릇없이 굴고, 부모를 비판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당황하게 된다.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37)

세대 간의 갈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쉽게 따르기 때문에 옛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앞의 사례로 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급격히 유입되어, 전통적 가

치와 현대적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갈등은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두드러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유교적 전통 윤리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의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고 자기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3 도덕(지학사, 2003:53)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즉,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숭고한 사랑이다. 예컨대, 어느 산모가 출산 중에 출혈이 심하여 산모와 아기 중에 한 사람의 생명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산모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아기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쏟는 부모의 사랑을 일컬어 자애(慈愛)라고 한다.”

중1 도덕(지학사, 2001:169)

[그림 4-12] 수직적 가족관계의 사례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18)

세대간에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각기 보는 시각과 느낌이 다르게 되므로,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자기 표현력이 강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에 대해, 타인의 시각을 의식하며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세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 세대는.....”, “요즈음 아이들은.....”하며 다른 세대를 외면하기보다는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중2 사회(금성출판사, 2001:159)

〈먼저읽기〉

재홍이는 조별 활동에서 보고서 작성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월요일이 마친 발표 일이라 일요일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이 거의 끝날 무렵 그만 저장할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컴퓨터를 꺼 주시려다 실수로 [저장하지 않음] 키를 누르시고 말았다. 그 때 잠이 깬 재홍이는 밤새 작업해 놓은 보고서가 거의 날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래서 재홍이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 온 재홍이는 이 사실을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달래 주시며 어머니께 걱정하시지 말도록 전화까지 해주셨다. 그 순간 어머니께 화를 내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생각해보기〉

1. 이런 상황에서 재홍이가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재홍이는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
2.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면, 단란한 가정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36)

가족 신문을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4인 가족, 아들, 아들, 웃고 있음)

중 3사회(디딤돌, 2002:127)

성평등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세대 내의 성별분업이 극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녀세대와 이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교과서 내용에서 이런 부분은 거의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시간을 하루 평균 14분으로 제시한 그림이 인상적인데, 그림과 더불어 자녀들과 부모세대가 가사노동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서술이 덧붙여 있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가족 내 가사노동이나 여타의 일에 대한 분업을 자녀세대와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서술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자녀세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도 딸에게 ‘가사’의 역할을, 아들에게 ‘사회’의 역할을 분담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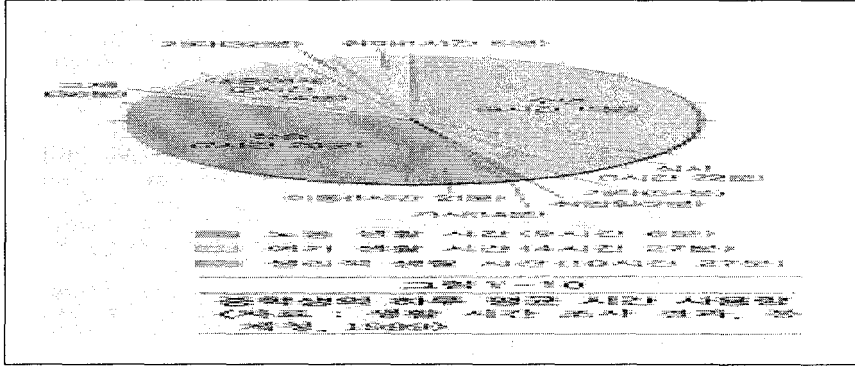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하기〉

가족문제의 사례.

- 1)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제로 갈등.
- 2)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정 내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가사일 분담 문제로 갈등
- 3) 거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로 인한 갈등
- 4) 가족 간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한 갈등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40)

[그림 4-13] 중학생의 하루 평균 시간 사용량



주: 1) 가사노동 14분

자료: 중2기술·가정(교육연구사, 2001:181).

다음 사례를 통해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진희네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시게 되어 집안일 처리에 관하여 가족 모두 의논을 한 결과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집안일을 가족 모두가 돕기로 하였다.

<그림> 진희네 가족부부-누나-남동생: 가사를 함께 하는 장면.

중2 가정(금성출판사, 2002:172)

<그림> 신선한 식품의 선택, 엄마와 딸.

희수네 가족의 식단과 식품의 선택.

중3 가정(동화사, 2001:21)

3)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과 관련된 현황

노인에 대한 서술이나 삽화는 가족과 직접 관련되거나 혹은 사회와 관련되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내용이 제시된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여 노년 시기에 쉬어야 하는 존재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일을 통해 생활력을 갖춘 존재로 그려진다. 즉, 노인의 경우에도 남성은 대접을 받는 존재로, 여성은 대접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다.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도 여성 중심으로 제시됨으로써, 여전히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인 듯이 비춰져 기본적인 성별분업의 논리를 고착화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가족 부문에서 담당하는 노인 부양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서는 다른 가내 노동에 대한 ‘성평등’과 달리 유독 여성의 역할만이 강조된다. 부양받는 노인의 입장에서 손자녀 세대를 ‘돌보는’ 노동을 여성인 시어머니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부양하는 부부세대의 입장에서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며느리인 여성 혹은 손녀가 주로 맡고 있는 서술이나 삽화가 제시되고 있다.

〈삽화설명〉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중에는 인격자의 삶을 산 분들이 많다. 원효, 이황, 이순신, 안창호와 같은 분들은 ‘된 사람’이면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는 ‘난 사람’은 아니지만 본받아야 할 ‘된 사람’도 많다. 예를 들면, 일찍이 홀몸이 되어 샴바느질과 식당 운영으로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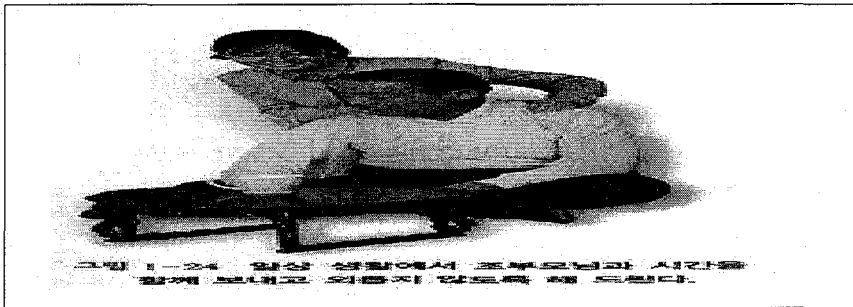
중1 도덕(지학사, 2001:36)

[그림 4-14] 자원봉사 하는 여성들



자료: 중3 사회(지학사, 2003:120)

[그림 4-15] 조부모를 돌보는 여학생



자료: 중1기술·가정(동화사, 2001:39)

〈그림〉 육아와 가사를 혼자서 짊어진 것으로 보임, 거기다 부모 봉양까지 (시어머니로 보임).

역할 갈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이 다른데,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가지므로 역할을 수행할 때 갈등과 모순이 자주 발생한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역할 갈등.

중2 사회(동화사, 2001:161)

집안의 어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서술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문화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간혹 등장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

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충돌이나 세대가 다른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자녀세대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만큼 전체적으로 어른세대나 노인세대와의 공존을 성평등한 시선에서 조망하는 서술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급격히 유입되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갈등은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두드러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유교적 전통 윤리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의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고 자기 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3 도덕(지학사, 2003:53)

시어머니: 애야, 이젠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게 좋겠다. 네가 직장에만 매달려 있으니 집안 꼴이 엉망이구나.

며느리: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살림을 잘 해 오셨잖아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관찮을 거예요. 저도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렇지가 않다. 가정에는 뭐니뭐니해도 주부가 집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아빤 수입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넌 집에서 살림이나 잘 하도록 해라.

며느리: 직장생활을 하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들도 자기 일을 가지고 보람되게 살고 싶어 해요. 전 계속 직장에 나가고 싶어요.

위의 사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며,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어

머니와 며느리가 각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51)

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

1) 경제변화와 가족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여성과 가족과 관련해 미친 영향은 적지 않으며(은기수, 2004; 강이수·신경아 2001), 특히 이혼율의 증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는 경제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가족의 변화를 가족 내의 변화가 아닌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이해하는 지적은 중요하며, 교과서에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현상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에 머물며, 미시적인 시기 구분을 통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를 연결 시키기보다 산업화를 전후하는 거시적인 변화(확대가족에서 핵가족)로만 설명 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료〉 유아 사망률이 높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농업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사망률이 줄고, 대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인구 증가가 오히려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13)

〈자료〉 가족형태의 변화. 통계청 1980년 및 200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자료에 대해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가 증가한 이유를 산업화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15)

〈탐구활동〉 전통사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등이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이 중심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미혼 자녀 혹은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핵가족 형태가 중심이 되었다. 나아가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21세기에는 핵가족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사회변동과 함께 가족제도도 점점 변하고 있다.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04)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또 그럴만한 공간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편리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은 가족의 규모가 점점 작아져 부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집안일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또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저마다 독립적인 생활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중1 도덕(대한출판사, 2001:159)

산업의 발전으로 가정생활에 큰 변화. 우리 가정에 물질적,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으며, 가족 구조는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 점차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사 활동도 각종 편의시설로 자동화되었다.

중3 기술·가정(홍진 P&M, 2002:9)

확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사회와 연관된 가족변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후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다

양한 가족의 형성에 대한 서술이 이 설명과 뒤섞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족 변화’에 대한 서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족변화를 핵가족 제도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서술로 인해 현대 가족의 다양한 구성이나 형태가 그 자체로 문제나 ‘어두운’ 측면으로 묘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술되면서, 부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도 갈등문제로 비춰지거나 이혼과 같은 또다른 가족의 형태를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조망하는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서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또 결혼과 동시에 독립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예절학습 기회의 부족,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의 탈선과 이혼의 증가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늘어나게 되었다.

중1 도덕(대한출판사, 2001:160)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문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자녀 문제, 노인 문제, 이혼 문제를, 사회적으로는 도시의 비대화와 환경오염을,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세대 간의 대화 부재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3 기술·가정(홍진 P&M, 2002:10)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부부관이 무너지고,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평등한 부부관계가 강조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특히, 맞벌이는 하는 경

우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를 두고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결혼관이 바뀌면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3 도덕(대한출판사, 2001:139)

2)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극히 부족하다. 드물게 입양관계에 관한 가족의 형성을 서술한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그저 제시될 뿐,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구체적인 예시, 삽화, 그림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부부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양자 또는 양녀로 받아들인 자녀, 즉, 입양관계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중1 도덕(대한출판사, 2001:156)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족의 중심이 된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예로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만을 위한 결혼처럼 서술되어, 한국땅에서 함께 사는 여성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문제 있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다문화적인 국제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이주여성들을 ‘한국화’하는 서술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국제결혼 ‘가족’에서 진행되는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고착화를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탐구활동〉

다음은 우리 나라의 농촌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이다.

“농촌총각과 외국인 며느리”. 30대 중반을 넘겨서도 가정을 이루지 못한 총각은 ○○군에서만 500여명에 이른다.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군 회원들은 1997년부터 이들의 결혼을 주선해오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까지 처녀를 찾아 맞선을 보게 하고, 국제결혼에 따르는 절차들을 보게 하고, 국제결혼에 따르는 절차들을 함께 밟아주는 일이다. 지금까지 결혼에 이른 부부는 130여 쌍에 이른다. 결혼 초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많지만 대부분이 아들 딸 낳고 잘 산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 주민들의 보수적인 결혼관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기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총각도 많다.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해와 보살핌이 절실하다. -○○일보 2000.5.16

“필리핀 주부모임” 이 모임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기와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에 대한 애교스런 불만으로 시작된다. 회원들이 다 모이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불고기 요리법, 김치 담그는 법 등을 주로 배운다. 요리가 끝나면 한국말을 공부한다. 선생님은 따로 없고, 회원들이 각자 남편한테 배운 말들을 자랑하면 발음 등을 서로 교정해주면서 함께 배운다. 또 모임때마다 한국 노래를 배운다. 파란 눈에 까무잡잡한 피부 등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들은 어느새 평범한 한국의 아내, 며느리로 바뀌었다. -○○일보 2000.3.14

중3 사회(중앙교육진흥원, 2002:172)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매우 궁핍하게 묘사한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라고 하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4인 가족 이외의 가족구성을 궁핍화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가족을 내용이 아닌 구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준다.

〈자료〉

어느 개발도상국의 한 가족. 엄마와 아이 5명, 할머니 장면: 궁핍해 보임.
중3 사회(금성출판사, 2001:172)

3. 성평등한 가정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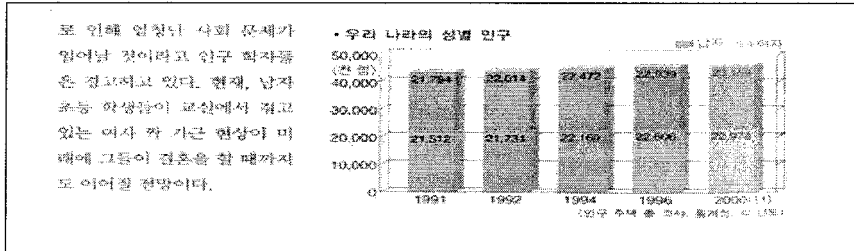
가. 가족의 구성과 해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형식’의 측면을 검토해본다. 형식의 측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나 규모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성평등의 내용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가족형성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자 짝 기근’이라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의 인구문제를 결혼의 불균형으로 이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속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결혼과 가족을 필연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형식의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은 없다.

[그림 4-16] 남녀 성비 불균형의 설명



자료: 사회문화(대한 교과서, 2002:206)

우리는 성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며 자녀가 성장한 뒤 결혼을 시키고 노년을 맞게 된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206)

인간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영속성과 생명 창조의 성취감 그리고 부모라는 지위 획득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녀와 깊은 애정 교환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자녀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성숙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41)

[그림 4-17] 전통 혼례 및 오늘날의 결혼 모습



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15)

중학교 교과목과 달리 특히, 기술·가정에서 가족과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결혼제도의 다양성이나,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사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전형화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사회, 도덕 교과목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며칠 전 승이는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갔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는 언니가 부러웠다. 그런데 언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승이는 장래에 자신도 사회생활을 그만두고서라도 결혼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연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또는 부모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가정(교학사, 2005:21) [나의 생활설계]

현대사회에서는 결혼 여부가 성인의 기준은 아니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결혼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사회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회 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20)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결혼 자체가 선택 사항이 되었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기 위하여, 또는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기술·가정(대한교과서, 2001:44)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최근에는 독신도 선택가능한 생활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독신을 결정하기도 한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1)

가족생활 주기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므로 무자녀 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 가족, 재혼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는 전형적인 가족생활 주기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생활 주기에 맞추어 볼 때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나, 모든 가족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23)

2) 가족규모, 형태의 변화

가족규모의 변화와 여러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무자녀 가족을 개인주의로 인한 결과로 설명한다거나 독신 가족을 결혼 연령의 증가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듯, 다양한 가족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다양화를 자칫 가족의 위기나 핵가족 형태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

가족 구조에 있어서는 평균 가구원 수가 1960년 5.6명에서 1995년 3.3명으로 감소했으며,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신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 단독 가족,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1)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 수의 감소로 인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3세대 이상의 가구가 2세대 혹은 1세대로 단순화되고 있다. ...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농촌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결혼관의 변화나 이혼율 증가 등에 따라 편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독신, 재혼 가족, 별거 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12)

부부와 그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증가와 함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내, 주부,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기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맞벌이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34)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자제하려는 서술 방식을 보이지만, 전통윤리 과목이나 법과 사회 등의 다른 과목에서는 이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이혼의 특성 중 하나는 평균 결혼 기간이 8.4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이다. 이렇게 결혼 초기의 이혼이 많은 것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할 때문일 수도 있다. 여지껏 우리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을 나이에 맞추기보다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붕괴의 문제이다.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위기가 오게 마련이지만, 개인주의적 사고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서 일생 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곳곳이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59)

이혼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혼은 오랫동안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근대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였다.

법과사회(교학사, 2003:50)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제대로 서술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문제는 매우 커다란 사회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주여성/남성들은 ‘근로자’로서 조망되는 경우에서만 비취진다. 함께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이주 여성/남성들을 한국 ‘가족’의 다양성으로 포괄하는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일곱 핏줄이 모인 한가족에 대한 설명처럼 극히 적은 비중으로 ‘입양’한 가족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만 있다.

〈일곱 핏줄이 모인 한가족〉

박형규 씨네 가족은 식구의 숫자로만 보면 전통적인 대가족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씨네 가족은 공동체 가족으로 대안 가족, 이른바 ‘신가족(new family)’의 한 유형이다. 박씨 가족은 먼저 아내 양임씨와 박씨 아버지 박정근씨를 비롯해 11명의 아이들까지, 무려 14명이나 된다. 아이들이 많은 까닭은 친자녀 둘에 셋을 입양한데다, 복지 시설 등에서 여섯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박씨네 집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시골벽적 늘 잔칫집 풍경이라고 한다. 박씨는 “우

리 가족은 나와 아내, 아이들 성씨가 다 달라서 모두 일곱 핏줄이 모여 한가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한다. 가족 해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가족의 개념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 ○○주간지, 1999.12.30.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108)

[그림 4-18] 이주노동자들의 명절



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232)

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에서 살펴본 형식의 측면과 함께 이번에는 ‘내용’의 측면을 고찰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제약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성별분업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진단과 서술을 살펴본다. 성별분업이 일차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이 세대간에 어떤 방식으로 성평등하게 전달되는지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사회의 가족내 문화에서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 혹은 노인부양이나 돌봄노동 같은 상황에서의 성평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1) 성별분업

여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설명들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거나 역

사적으로 그러했음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부분이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인류 사회의 최초 형태는 남성들은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작물을 줍거나 요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동양사상에서는, 남녀 어느 한쪽도 혼자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상호 결합에 의해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남녀는 주어진 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과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는 이성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2)

의도적으로는 성역할의 분리를 지양하며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에 국한된 집사람으로, 남성은 사회 활동과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바깥사람이라는 전통적인 남녀관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이삼식 외 2005).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바람직한 가사분담의 정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성역할이 달라진 설명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 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서술을 드러내고 있다.

<삽화> 초대와 행사의 준비 과정에서 장보고 음식 만드는 일을 모두 여성이 하는 것으로 묘사.

<삽화> 청소와 정리정돈: 여성이 청소하는 방면.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66, 68) <초대와 행사의 계획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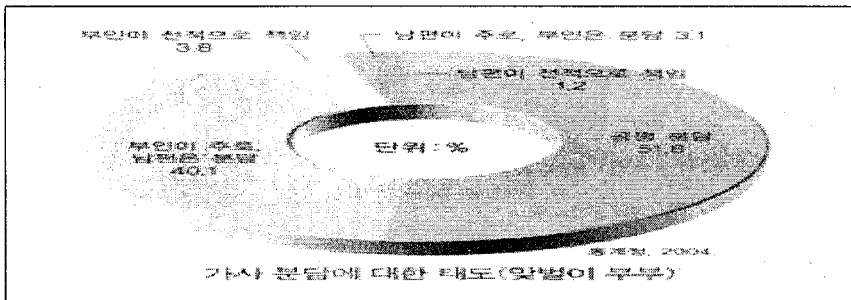
특히 가사노동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 일상생활의 가사 등에 있어서 앞으로 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1)

남편과 아내는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 갈등이 있을 때에는 서로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양자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며,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8)

[그림 4-19]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자료: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18)

[그림 4-20] 가정 내 성역할 변화



“아내의 사회진출을 놓고 화합을 이루지 못해서 붕괴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사회 진출의 장애물로 생각하여 독신을 고집하는 남녀도 많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3:121)

주부의 취업은 가족원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중 역할 수행에 따른 과중한 부담으로 가족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가사를 분담하여 역할을 조정해 나가야겠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92)

부부간의 역할 분담과 권력구조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 일상생활의 가사 등에 있어서 앞으로 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1)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서술이 눈에 띈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국가정책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기술·가정 교과서의 서술에서 눈에 띄이는데, 성평등한 가족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성권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마즈 체조, 호흡법 등을 배우는 임신부 교실 등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6)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으며, 이제에는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산되었다. 딸사랑 아버지의 모임. <http://www.daughterlove.org>

기술·가정(법문사, 2003:15)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아버지는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 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아버지들의 관심이 또한 커짐에 따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41)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42)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평등한 부모 역할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30)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도 좋을 뿐 아니라 남성들 자신에게도 많은 보람과 자기 계발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것이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일 것이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5)

2)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다소 다르게 세대간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서술도 눈에 띈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현대 가족의 문제로는 주로 세대간의 갈등, 결혼 생활의 불화로 인한 별거나 이혼, 가족의 문제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증가 등이 있다.

기술·가정(대한교과서, 2001:13)

생활문화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생활양식이나 가치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세대 차이가 반드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90)

의례의 방식에 대하여 세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야기해보자.

기술·가정(법문사, 2003:191)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세대간 전수의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부부간에 가사노동 분담뿐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자녀교육이 필요한데,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론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의 서술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모세대의 모범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21] 고정적 성역할을 주입하는 자녀교육



자료: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61)

고등학교 2학년인 영화는 음악을 전공하여 성악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음악 학원에 다니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인데, 배가 출출해서 친구들과 떡볶이라도 사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부모님께서 꼭 야단을 치신다. 여자는 너무 늦게 다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빠는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와도 야단은커녕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며 간식까지 챙겨주시면서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오는 날은 너무 속상하다. 이것뿐이 아니다. 왜 우리 사회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 많은지..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10)

21세기에는 가사 분담이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집에서 하는 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따라서 남자 아이에게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필수이다. 성별에 따른 직업 구별이 무너지고 취업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도 집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 아이에게 현모양처형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성과 모험심을 키워 주어야 한다. 전통적인 남녀 역할 분담에 따라 ‘남자는 씩씩하게, 여자는 얌전하게’ 키우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음을 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19)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집안일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120)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형성되므로, 부부가 집안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양성적으로 조화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가정(대한교과서, 2001:33)

세대간 성평등한 문화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족 내의 가족 일을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띈다. 그러나 성별로 고정된 역할 분담을 함께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연령에 따른 차이나 다른 사안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위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직업 노동을 병행함으로써 노동 부담이 커지므로 가족원 간에 가사 노동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한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213)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원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로 변화하였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12)

가족 관계가 아버지 중심의 수직적 관계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성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도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였으며, 가사와 육아에 남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상호 협조 및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기술·가정(천재교육, 2002:12)

3) 노인 부양이나 돌봄노동

전체적인 서술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현재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를 ‘개인주의’의 폐해로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나이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것을 소원한 관계로 묘사하면서 함께 사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현재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않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노인의 소외 문제를 비교하는 방법 또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개인주의 문화의 또다른 폐해는 노부모 부양 문제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모든 생활을 개인이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양의 노인들은 자식들과 소원하여 양로원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늙어서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거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활모습이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59)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애정만이 강조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문제나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93)

많지는 않지만, 노인문제를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다. 또한 노인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의 문화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와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28)

3세대 동거형 주택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확대 가족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새로운 주택 유형이기도 하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12)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성인 자녀들은 노인 부양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노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로 인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2)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거의 항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설명과 연결짓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문제의 근원으로 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돌봄이나 부양노동을 원래 '여성'의 업무인 것처럼 전제하며 설명한다.

오늘날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원의 역할분담,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12)

우리 가족은 할머니, 부모님, 나, 남동생으로 다섯 명이다.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나가시고 나와 남동생은 학생이다. 그런데 늦게 퇴근하시는 엄마 대신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2)

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

1) 경제변화와 가족

경제변화와 가족을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경제변화만을 중심축으로 설명한다. 이를 테면 전통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와 현대의 핵가족 제도의 대립만으로 경제변화와 가족관계로 설명한다. 따라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2000년까지 40여년에 걸쳐 진행된 빠른 속도의 가족관계나 형태 변화를 경제적 단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추상적인 다양화만 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으므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위계 구조의 가족 형태가 나타났고,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친족의 영향력도 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전개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직업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이동 또한 잦아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핵가족화되었다.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102)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발달로 인해 전통 사회의 대가족 제도가 분리되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가 분리되면서 부부 중심의 소수 가족이 늘어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비동거 가족, 맞벌이 가족, 노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11)

21세기의 세계의 가족문화의 특성은 한마디로 ‘유사성의 증가’와 ‘다양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198)

구체적인 경제단계별 가족과 사회의 연계가 설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변화는 모두 여성의 취업과만 관련되어 주로 설명된다. 즉, 가족관계나 가족문제를 단편적인 도식화로 제시한다(이삼식 외 2005). 이런 서술 방식에서 특히 여성의 취업이 노인부양이나 출산을 감소 등 전통적 가족형태를 바꾼 일차적 원인처럼 서술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통계청의 보고(1998)에 의하면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74.9%에 이른다. 그리고 취업 부부가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인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25)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인간 욕구의 다양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나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문화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특히 전통적 가정 생활문화의 바람직한 면을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가정 생활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민주적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가족 내의 민주화는 가사 노동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사노동은 여자가, 직업 노동은 남자가 한다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어느 한 사람에게 과도한 노동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

기술·가정(법문사, 2003:203)

취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아기를 어린이집, 유아원 등의 보육기관에 맡기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한 방과 후에 이런 보육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동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은 개개 가정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및 미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육아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해보자.

기술·가정(법문사, 2003:27)

2)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기존의 핵가족 형태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역시 인색하며, 입양에 대해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가정 교과서도 상당수 있다. 입양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삽화〉 다양한 가족 삽화 소개에 ‘입양아 가족생활 삽화’ 포함.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35)

혈연 중심의 동양과는 달리 [서양의 가족] 은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는 것에 많은 보람과 의미를 가진다.

〈사진〉 미국의 입양가족의 모습: 백인 부모가 유색인 아기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기술·가정(대한교과서, 2001:13)

일반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통해 형성되지만, 입양에 의해 가족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략) 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에는 친족 관계가 사회 조직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사회 조직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구성원들에 대한 친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시화, 분업화, 개인주의화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은 친족관계에서 완전히 유리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002:98)

이러한 혈통의식에 따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동성동본의 금혼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적 가족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부계의 혈연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선호’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혈연적 가족 의식이 중시되어 고아를 해외에 입양시키면서도 국내에서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2005:35)

입양을 통한 가족형성 이외에 다른 가능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문제’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한국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거나 모순적인 내용을 혼합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가족형태를 하나의 국가에만 해당하는 기이한 정형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높아 가는 이혼율이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 버려진 아이 등을 보면서 결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알아보자.

기술·가정(법문사, 2003:12)

일찍 부모가 된 경우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 쉽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은 부모됨이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5,000명 이상의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10대 임신부는 1991년 전체 입소자의 24%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 상반기에만 63%에 달하였다. 성·피임에 대해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4%에 불과해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10.31.○○일보.

기술·가정(법문사, 2003:14)

스웨덴에서는 ... 젊은이들이 보통 10대 후반에 동거를 시작할 때 주위에서
는 이들의 독립을 축하해 준다.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15)

유럽과 북미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내 개인주의이다. 이로 인하여 자녀
를 갖지 않는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독신과 동거가 보
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가족 내 성평등과 역할 공유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기술·가정(지학사, 2005:17)

미국의 가정생활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등의식이 강하여 육아와 가
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또한 일과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하고, 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 그러나 미국의 가정도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편부모 가정의
증가로 자녀 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기술·가정(천재교육, 2002:16~17)

기술·가정 과목에서만 두드러지게 미래가족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미래처럼 제시하여 혼돈을 안겨준다. 일부 미
래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으로는 가사노동의 분담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
고 또한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 패치워크형 가족, 코하우징 등 실
제로 대안적 형태를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서술도 간혹 눈에 띄인다.

미래의 가정의 모습은 성역할의 평등으로 인한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라 부
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평
등주의적 가족 이념과 공평한 역할 수행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17)

앞으로의 가족의 형태는 독신자, 자발적 무자녀 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

족, 수정 확대가족 혹은 수정 핵가족, 4세대 가족, 동거 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공동체 가족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가정(교학연구사, 2003:13)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원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로 변화하였다.

기술·가정(금성출판사, 2005:12)

앞으로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규모가 3~4명 정도의 소수인 가족이나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가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족 가치관은 평등주의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 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

기술·가정(형설출판사, 2005:19)

2010년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 오전 6시 반, 주부 신미례는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남편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그 동안 신씨는 초등학교생인 남매의 등교준비를 돕는다. 이들은 크든 작든 가사와 육아에 관해 철저히 공동책임제를 고수한다.

기술·가정(교학사, 2005:19)

가족이란 한 주거 공간 안에 사는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어, 유대감을 나누며 서로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술·가정(대한교과서, 2001:12)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거, 독신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생긴,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의 조화를 이룬 주거를 코하우징이라고 한다.

기술·가정(두산, 2003:18)

탐구활동 2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 나타날까?

“이러한 가족형태를 패치워크형이라 하는데, 서양에서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이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패치워크는 쓸모없는 작은 천 조각들을 잘 배치하고 꿰매 아름답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수공예를 말하는데, 패치워크 가족이란 조각보처럼 여러 인간관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가족적인 유대감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동거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훨씬 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견한다. 동호인 가족, 공동체 가족 따위를 이루는 변형 1인 가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다”

4.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방안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초점으로 청소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수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비교하면, 중학교 내용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내용이 한걸음 더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서술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쳐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한다.

교과과정상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에도 고등학교의 기술·가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괄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근접하게 분석되는 것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내용이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도덕과 사회과목에서 특히 전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문화’에 관해 전통적인 방식을 이상으로 제시하여 현대의 특성을 하나의 일탈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조망하는 측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중학교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기술·가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강할 교과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개선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둘째, 교과서의 과목별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 도덕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기술·가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접근방식과 문제의

구성,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서 편차가 커서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문화의 내용이 기술·가정과 같은 ‘가정’을 초점으로 하는 교과목에만 편중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요청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정을 사회와 구분된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술·가정의 교과목이 통합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기술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가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기술과 가정을, 가정을 기술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시각으로 가정, 가족문화가 사회문화와 연계된다는 재구성성이 필요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첫째, 전반적인 서술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민무숙 외, 2006:33) 때문에, 성평등한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향과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구성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여 당위적인 서술을 피해 청소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삽화나 그림에서 서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둘째, 가족의 형식적 측면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전통가족 대 핵가족이라는 대비는 현대 사회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뒤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족문화 자체를 경직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본 인식들이 형성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가족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문화에서 진행될 다양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남녀 성별 구도를 넘어서서 고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가사노동 분담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차세대에게 이런 평등관계를 어떻게 전수할 것이며, 더

포괄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와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도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현재,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미래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가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정책의 측면과도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내의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기본으로 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넘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족문화를 '정상'으로 바라보거나 단일한 가족형태를 고착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다양한 내용의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포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여성의 혹은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혹은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성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한 법과 제도의 측면도 교과서 분석에서 활용한 범주화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적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적 측면을 보충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와 연관된 가족문화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식적 구성을 위한 법·제도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련 법에 관한 내용을 성평등을 초점으로 해

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을 기본으로 검토하면서 관련사안별로 해외 사례를 비교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관한 관련법은 민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하에 추진되는 「가족정책기본법」이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가 가족문화와 관련된다.

1)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적 가족형식 극복

한국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형성으로 향한 일차적 단계로 호주제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안(2008.1.1)은 다른 무엇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계보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현행 제778조, 제780조,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또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으로써 형식적인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번 정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제781조제6항) 하여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 성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1996년에 시행된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9조(가정교육) 항목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 헌법 제24조에 의해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본적 정신에 기초하여 가계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서 ‘집’이 폐지되어 결혼 시의 성씨의 결정이나 친권, 부양, 상속 등 모두가 남녀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해 법률상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정해숙·김연, 2002:38~39).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중심의 가정문화가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양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성평등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평등 가족법의 제도화와 내용변화

독일은 1966년에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에 제시된 혼인 및 가족법에 입각한 가족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남녀의 평등권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는 부부와 그 자녀는 기본적인 사회집합체로서 직장, 학교와 공공생활 등의 집합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강점숙 외, 2003). 스웨덴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이 논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족생활에 관한 중요성과 책임을 증대하는 제도 개선이 모색되었다(Haas, 1992; Leria, 2002; 윤홍식, 2000b 재인용).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가족관련 법 및 정책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⁷⁾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제1차로 2006~2010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제시되었다.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그리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과제가 제시되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정책과제가 ‘평등한 가족

7) 한국에서 최근 추진되는 여성관련 법안은 용어선정을 둘러싸고 여성운동단체나 여성주의 연구자들 그리고 정부 간에 의견이 배치되고 있다. ‘건강가정’이 일정한 형태(3인 혹은 4인의 이성애 가족구성)의 가족을 소위 ‘건강한’ 가족으로 전제하고 그 밖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불건강 혹은 비건강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이 법안과 연관되어 있는 센터의 명칭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논의

각 국가별로 성평등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싸고 성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5년 개정을 통해 부부가 공동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남편이 더 이상 단독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재산법상 남녀평등의 기반이 확보된다(조은희·전경근, 2004). 또한 독일에서는 1957년 남녀동권법에 의해 잉여공동재를 법정재산제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 기본원리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이 명시되었으며, 재산처리에 있어도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조은희·전경근, 2004).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부부재산제에 관한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부부재산제도가 “별산제를 택함으로써 일방의 배우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측면과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박선영, 2006).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골자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인정함으로써만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제의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방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자칫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한정하여 다시금 성별구분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둘러싸고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로 입장이 구분되고 있다. 부부재산제를 둘러싼 이런 쟁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형식적인 성평등이 구체적인 내용상의 성평등으

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내용상의 성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과 제도를 수립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나. 가족 내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족 내 노동, 특히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노동에 관한 사회적 책임, 성평등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대 전제 하에 가사노동 공동분담, 육아휴직제도,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확대, 모성 개념의 새로운 확장,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가족’의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사노동 공동분담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가족법에 의해 부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민무속 외, 2006:126). 가사노동 공동 분담에는 특히 부인이 자녀를 가진 취업모인 경우 남편은 가사를 돕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가족상황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다(강점숙 외 2003).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문제의 접근은 가정의 일과 사회생활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약하는 문제로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 지적되었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이 여성의 가사, 육아부담의 집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 개호, 가사노동이나 지역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위해(박

효숙, 2006:61) 엔젤플랜 3탄인 “어린이·양육지원플랜”에서 특히 이 부분을 고려한 대응책을 보장하였다.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비율은 남성 32분, 여성 3시간 28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7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강학중·유계숙, 2005:188).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참여가 남녀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효과적인 가족재생산을 위해 여성이 가정에 고착되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김혜영 2006).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가사노동 공동부담 제도는 한국 사회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마련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 여성가족부는 부부간에 동반자적 배우자 관계가 정립되도록 하는 한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부부 가사분담 비율을 8.1%에서 15%로 만든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이후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성평등성 확보

가사노동과 함께 가족 내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육아에 관한 돌봄 노동 부분이다. 가사노동에 비해 볼 때, 이 부분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해서 논의되면서 ‘가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족의 측면 특히 남성과 여성의 젠더 균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성평등 휴가제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 모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요즘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98.3%, 남성 1.7%로 압도적으로 여성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다(조애저 2005).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모성보호법이 일

차적으로 ‘여성=모성’이라는 원칙을 갖는 측면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2002년 ‘소자화 대책 플러스 원’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이 중심이었던 종래의 대책에서 남성을 포함하는 방식이 포괄되었다(문옥륜 외, 2006; 김명중, 2006). 이때 5인 이상 업소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업 취득률을 당시 0.33%로부터 10%까지 약 30배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독일에서도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여성정책의 주요 기조에서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내에 모와 부가 번갈아 하는 논의가 제시되었고, 1999년 육아휴직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전환하는 성평등적 역할분담 지원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강점숙 외, 2003).

스웨덴에서도 육아를 남성,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면서 여성의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김종기, 2005). 이 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육아를 위해 집에 있는 부모의 한 쪽이 390일 동안 수입의 80%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되는 남성은 육아휴가를 두 달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사라지게 된다. 부모수당과 같은 이 제도를 통해 남성은 가사노동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양육노동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인되고 있다. 스웨덴의 이러한 제도는 여성만 사용했던 모성휴가가 1974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부모휴가로 통합되는 것보다 맥락이 이어진다(윤홍식, 2005b). 그리고 이는 유럽국가로 확대되어 유럽 전역에서 성중립적인 부모휴가가 제도화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존의 부모휴가기간에 추가적으로 아버지할당기간을 더해 총 부모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휴가기간 내에서 아버지할당기간을 나누는 스웨덴의 방식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홍식, 2005b).

한편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영아양육 및 부인 산후 조리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유급 출산 후 휴가 및 유급 부모 휴가 기간 중 18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회까지 분할이용 가능)의 휴가를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006-4-B). 그러나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행결과 유급부모 휴가(158일)를 어머니가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부친휴가(18일)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대부분 실제적인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 중심의 육아 휴직제도를 남녀가 함께 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루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방향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저출산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육아휴직제도나 모성보호, 모성휴가, 아동수당 지급 등은 ‘일하는 여성’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 전업주부(여성이든 남성이든)에 관한 고려가 일차적으로 배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돌봄 노동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또다른 여성에 대한 ‘개악’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에서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을 들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 90일이 보장되었지만, 이는 여성노동관련 보호조항을 삭제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남녀평등을 조건으로 여성에 대한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임신부 보호로만 한정되는 방식이 진행된 것이다(문은미, 2004). 이렇게 되면, 성평등을 내거는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여성 내에서 맞벌이, 그것도 정규직에 안착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나 비정규직의 여성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평등적인 접근 자체를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을 보호하는 것 자체에서 여성 간의 ‘차이’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남성에게로 확대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도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형식적인 제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미묘함과 젠더의 불평등함에 놓인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새삼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가족간호휴직제도

저출산의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동에 관한 양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평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 노인세대나 간호가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의 대책방안도 덧붙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도라는 명칭으로 관련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기존의 성별분업 원리에 의해 주로 여성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한계가 여전히 지적된다. 따라서 이를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더불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의 남성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회적 노동과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평등 가족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먼저 내용적 측면의 정책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런 가족문화를 전체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한다.

1) 성평등 가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지원

한국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지원은 가족지원정책법으로 개정될 예정인 2004년의 건강가정기본법 하에 추진되고 있다. 가족지원정책법안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장 건강가정사업을 ‘가족정책 기본시책’으로 개정하면서 제28조의 내용

을 ‘가정의례와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조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5). 개정안은 가족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을 ‘평등 가족문화’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단위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센터의 사업 부분이 관련된다. 이에선 첫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둘째, 지역사회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유도가 포함된다. 첫째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관계 향상(결혼전 준비교육, 예비부모, 부모자녀간,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등), 평등한 가족생활 영위(가족 내 역할분담, 가족간 소통, 돌봄의 공유 등), 가족구조의 다양성 수용(가족에 대한 인식전환,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생활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의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센터 실무종사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2005년부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 센터가 근간이 되어 시군구의 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의 원칙이 정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내용이 상당부분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결과보고서 등에서 센터를 방문한 인원에 대한 통계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끌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희박하다. 따라서 가족지원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용을 고민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정폭력방지법

한국사회는 가족 내 부부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시정하고자 1998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관련 법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보완대책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04년 가족정책 시행방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 촉진”의 내용으로는 ‘폭력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변화순·최윤정 2004)가 제시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와 관련된 부분이 단 두 개의 항목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3장 제21조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세부항목으로 소개되어있으며, 제26조(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항목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되는데 그치고 있다.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도 상담소와 보호소 설치관련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문현아, 2005).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 부부간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학대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여전히 예방교육이나 사후 상담을 통한 교정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폭력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부분은 1차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춘숙, 2003). 기존의 ‘건강가정’ 중심의 가정폭력 대처방안은 피해자를 기존의 폭력가족 내부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혼’을 원하는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우, 이혼한 이후에 여성이 새로운 ‘가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만 보다 큰 맥락에서 성평등 가족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독신가구, 사실혼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 가족 등은 법적인 혼인상태나 생물학적인 관계 맺음(임신과 출산)으로부터 벗어나 성적(sexual) 대안 및 친부모 관계에 있어서의 대안적 측면을 보여 주며, 양성간의 평등성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변화순, 2003:9~10).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강조되는 두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에서는 「모자복지법」이 부자가정을 포괄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거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자녀학비(분기별 지급)와 아동양육비(월별 지급)이다. 영국에서는 모자가정(한부모가정)에 대해 시영주택을 제공하거나 아동수당, 보육수당, 어머니 실업수당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최봉섭, 2005).

이런 정책들은 일차적으로 명칭에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과 배치된다. ‘경제적 빈곤’ 해소와 아동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목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다. 즉, 법이 한부모 가족을 3~4인 가족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경제적 측면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울산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내용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발간,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및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지원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생활상담의 내용에는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 상담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결혼이민자부부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출신 국적의 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상호평등과 존중이 기반이 되는 부부관계 확립을 목표로 결혼이민자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기존의 결혼과 매우 다른 형태로 분리하고 있다. 둘째, 여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문화를 근본에서부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은 전혀 포괄되지 않고 있다(한국염, 2006).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맥락에서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내외의 법과 제도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체계나 가족법에서 형식적인 성평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법과 정책을 통해 내용이 이후 보완되어야 하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존의 3~4인 이성에 중심의 가족구성의 가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사례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관한 사례는 먼저 개별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가족들 간의

혹은 가족과 사회 간의 확대된 형태의 성평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개별 가족 내의 성평등 가족문화

먼저 개별가족 내에서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평등명절 설계명’을 한 예로 살펴보자(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6).⁸⁾ 명절 부분을 별도로 하고 이를 성평등 가족문화로 대체하여 전체 항목을 성평등을 위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면 대략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일상사를 ‘가족회의’를 통해 부부간, 부부-자식 세대간 평등한 의논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음식을 차리거나 하는 등의 가사노동 더 나아가 양육이나 가족원에 대한 보살핌 등과 같은 돌봄 노동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분담되도록 한다. 셋째, 제사를 지내거나 가족 내 의례를 시행할 때는 딸, 아들이 돌아가면 진행한다. 넷째, 주변에 소외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취한다. 다섯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 혹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것을 이들만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가족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여섯째, 처가댁과 시댁으로 구분되는 구조 속에 세 번째 항목을 고려하면서 양가 모두에 균형 잡히고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다. 끝으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며 민주적인 입장에서 대하면서 함께 하는 가족여가 문화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경험과 실험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더욱 필요하다. 가족학자들은 ‘원가족의 사회화(family-of-origin socialization)’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녀들이 이후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8) 1. ‘가족회의’를 열어 명절 계획을 함께 세운다. 2. 명절음식은 여성, 남성을 따지 않고 일을 나눈다. 3. 딸, 아들이 돌아가며 명절을 주관한다. 4.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한다. 5. 조상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6. 고스톱은 이제 그만! 가족 명절놀이를 개발한다. 7. 외로운 이웃과 정을 나눈다. 8. 며느리에게 휴가 주기. 9. 시댁과 처가집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인사하려 하기. 10. 고생한 가족들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 나누기.

는 설명이다(Cunningham, 2001, 강학중·유계숙 2005:194 재인용). 이 설명들에서는 특히 평등하게 가사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남성이 가사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아, 원가족에서의 가사노동 분담이 한 집안의 가사노동 분담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일상에서는 드물지만, 명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여성의 일을 보조하거나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험이 원가족에서 정착되면 이후 미래세대들에게도 전수되어 성평등 가족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활동의 책임은 남성이, 가족활동의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불평등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대안모색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아버지’상의 확립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있는 아버지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자녀양육을 모색하고 자녀의 성장과 관심을 함께 나누어 궁극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국여성개발원 2005)하는 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녀세대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남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여 이를 성평등 교육기회 더 나아가 실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서병숙·김혜경, 2000). 이는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자원봉사활동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잘 활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미래세대, 특히 남성에게 돌봄 노동의 가치를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족과 가족 간, 그리고 사회로 확대되는 성평등 가족문화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가족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가족단위와 연계되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을 전형화된 하나의

형태로 이상화하려는 생각을 넘어서실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전형적인 정상가족이라는 제한적 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혈연 중심, 동일 성씨, 동일 국적 중심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정형화하는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김유경, 2006:72). 즉, 일차적으로 가족을 상당히 큰 범주로 인식하는 작업 그리고 하나의 가족을 전형으로 대표하지 않는 인식이 일상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법,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덴마크에서는 코하우징 공동체(Cohousing Community)가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1960년대 덴마크에서 시도된 코하우징 공동체는 기존의 주택과 공동체 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생하였다. 코하우징 공동체는 건축적인 측면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50여 개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되어 현재 덴마크뿐만 아니라 북유럽에 확산되어 있으며, 미국에도 80개가 실행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7개가 이미 시행되었으며, 15개가 준비단계에 있고, 호주와 영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⁹⁾

이는 가구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ork)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이다(이은아·마경희, 2006). 미국의 콜로라도에 자리 잡고 있는 코하우징 공동체에서는 6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첫째는 기획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체의 건축 계획과 관련되어 하나의 구획화된 지역에서 서로가 이웃처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통의 부엌, 거실, 휴게실, 작업실, 놀이터, 세탁실, 도서관 등등 공동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여건에 따라 보강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주민들이 공동체를 책임지며 운영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공통의 식사를 마련하기도 하며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모인 구성원 간에는 위계적이지 않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여

9) http://en.wikipedia.org/wiki/Cohousing_Communities

10) <http://www.cohousing.org/overview.aspx>

셋째, 공동체 안의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공동체 내의 가구 일부가 주된 임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주민들이 그를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서로를 위한 자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항목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대된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현실공동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 맥락에서 자리 잡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각종 코하우징 공동체의 소개글을 살펴보면, 코하우징 개념이 사실상 예전의 이웃 개념을 되살리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 더 나아가 후기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과거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접목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다. 이런 측면이 보편화된다면 청소년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전통=확대가족, 현재=핵가족은 내용도 보완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하우징 공동체의 형태는 후기현대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형태는 일면 확대가족이기도 하고, 핵가족인 측면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의 확대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또다른 특징이 덧붙여 강조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직접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 근교 지역에 은퇴한 친구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나 다양한 귀농공동체, 공동육아 공동체, 대안공동체 등의 모습에서 이런 특징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제 3절 한국형 성평등한 가족문화 발전 방향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미래의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앞으로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규모가 3~4명 정도의 소수인 가족이나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가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족 가치관은 평등주의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형설출판사, 2005:19). 이처럼 성평등한 가족문화

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시작된 것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현실의 ‘가족’이 얼마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평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특히 이런 측면이 앞으로 더욱 초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현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핵심에는 ‘다양성’과 ‘평등’이 놓여 있다. 다양성에서는 3~4인의 가족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모색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평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족구성에서도 파트너간, 세대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 꾸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여 만들어지는 가족이 바람직한 한국형 성평등 가족일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단계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상형으로 제시하는 기본 인식의 틀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사의 변천 속에서 가족은 각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변화해왔다. 하나의 가족 형태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전제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혈통의 이성애 중심적 가족형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전형으로 제시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기틴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대처하는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기틴스, 2001:244).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하고 그 전형에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신 그려 넣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들의 존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모델의 초석은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미래세대를 위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사실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상정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적 육성을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에 더욱 초점을 ‘청소년’으로 맞추는 시각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세대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청소년 세대의 현실에 걸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방향전환도 필요하다. 리라는 생각이다.

제 5 장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제 1 절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 현황

1. 분석 대상과 방법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도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회와 도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영역의 교과내용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거나 교육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교육내용 자체도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내용 분석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내용에 대해 교과서 분석을 한 선행 연구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였다¹¹⁾.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7종 21책 중에서 1학년 교과서에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2, 3학년 과정에 2~4종의 교과서에 2~3쪽 분량의 본문과 삽화가 실려 있는 정도이다. 도덕교과서의 경우에는 1종 3책 중 1, 2학년 과정에는 고용문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으

11) 2005년도에 출간된 보고서 『인구관련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의 부록에 실린 교과 분석 내용중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관련 내용을 양적인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학교 과정은 (주) 동화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 지학사, (주) 도서출판 디딤들, (주) 금성출판사, (주)고려출판, (주)교학사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21책과 대한교과서(주)에서 출간된 도덕교과서 3책이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주)도서출판 디딤들, (주) 두산, (주)교학사, (주)천재교육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7책과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천재교육, 법문사, (주)금성출판에서 나온 사회·문화 교과서 5종 5책, 그리고 (주)지학사에서 출간된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4종 4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며, 3학년 과정에 4쪽에 걸쳐서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사회 교과서 7종 7책, 사회·문화 5종 5책을 분석한 기존 자료에 의하면, 7종의 사회교과서중 4종의 사회 교과서에 고용평등과 관련된 본문이나 사례, 삽화 등이 한 쪽 내지 네 쪽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5종의 사회·문화 교과서 중에는 4종의 교재에 적게는 2~3쪽 많게는 5~6쪽에 걸쳐서 실려 있었다.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항목은 ‘정치생활과 국가’,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또는 ‘사회변동과 미래 사회’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 교과서보다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덕 교과 4종 4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고용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단원이나 본문 내용의 언급은 없으며,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 전반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인정으로서 성평등을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존의 교과 분석이 사회적 영역의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고교 과정의 사회, 도덕 교과서들 중 한 출판사를 선정하여 교과서 총 8권(중학교 학년별 총6권, 고등학교 전학년용 2권)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하였다¹²⁾. 고용문화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양상을 소개하는 본문과 관련된 사례와 그림과 사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교과서 전체를 통해서 그림이나 사진, 사례 등 간접적으로 표현된 고용 관련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지향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청소년에게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의식속에 각인시켜주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12) 고용문화와 관련된 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각 교과별로 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 (주)지학사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3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교과서 3책을,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주)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1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 교과서 1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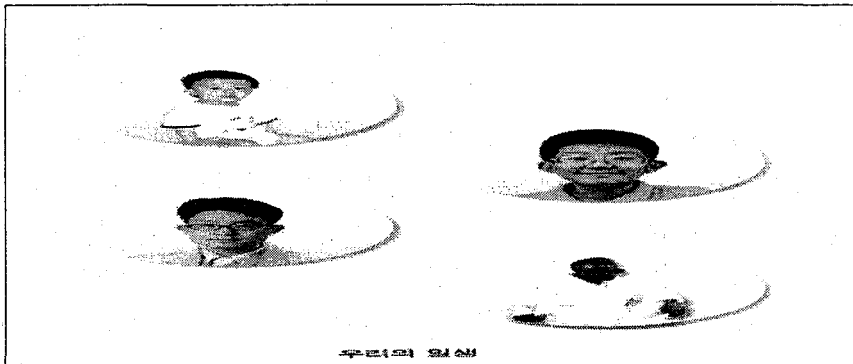
가. 보편적인 사회인, 인간의 대표로서의 남성

① 남성 = 인간, 국민, 시민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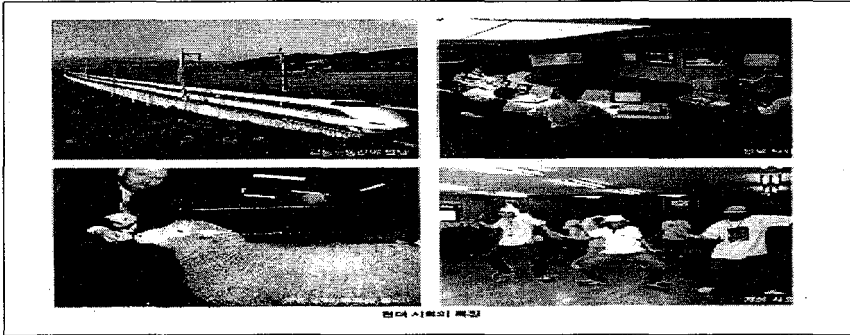
사람의 일생, 사회 변동, 정보화 사회의 변화 등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삽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 등장함으로써, 남성이 사회, 역사 현상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평균적인 인간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인간의 일생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 사진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명의 주인공으로 남성이 소개되어 있어, 남성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형상화됨(중1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9쪽).”

[그림 5-1] 인간의 대표로 전제되는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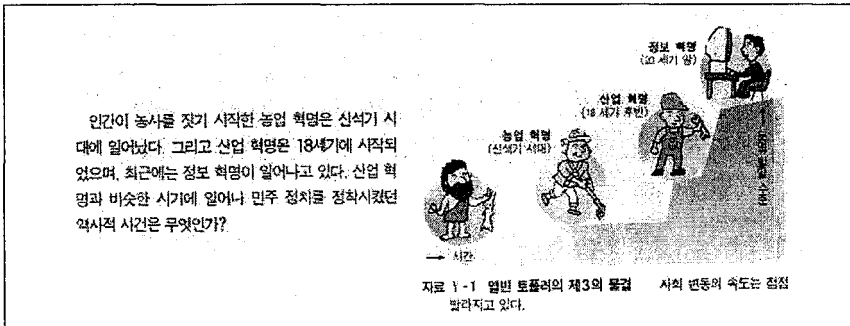


[그림 5-2]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주: 1) “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사진에 모두 남성들만 등장하고 있음.
자료: (중2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쪽).”

[그림 5-3]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주: 1) 사회변동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등장인물은 다 남성으로
자료: 중2 사회, 지학사, 133쪽.

② 남성 = 정부, 기업, 근로자의 대표

직업에 대한 소개 및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근로자가 남성이라는 인식에 치우쳐져 있다. 여성근로자보다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사진이 더 많으며, 근로자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 모두 남성만 등장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술자, 사무원, 재단사, 철공 명장 사례의 주인공이 모두 남성들 삽화와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음(중2 도덕, 137~139쪽).”

“노사화합 사례 사진에서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남성들이 서로 악수하는 모습이, 직장인 체육대회 사진에서도 남성들만 나와 있음(중2 도덕, 142~143쪽).”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남성만 사진에서 등장함(중3 사회, 지학사, 61쪽).”

[그림 5-4]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주: 1) 정치화 과정에서 합의안 도출을 설명하는 사진 속에 등장인물은 모두 남성임.
자료: 중3 사회, 지학사, 25쪽.

③ 남성 = 사회와 역사의 주체

사회변동과 역사의 주체로서 국민, 정부, 기업의 대표가 남성으로 표상되고 기술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역사속의 위인이나 명언, 고전 등에 대한 소개도 거의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학생들은 역사 속에서 미래의 역할 모델을 발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역사와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특히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여성들이 얘기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과서의 내용구성이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재구성되어, 여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에서 명언, 인물학습, 동서양 고전 탐구 등 도덕 교과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학교 도덕교과 3년 동안 1학년 인물학습에서 헬렌 켈러와 신사임당 소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언, 동서양 고전탐구에서는 전혀 여성 명사에 대한 소개가 없어 여학생들이 역할모델을 발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참조 사진으로 언급된 여성인물로는 테레사 수녀가 있다.

<표 5-1>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특징

구분		내 용
명언	여성	전학년 없음
	남성	(중1) 소크라테스, 노자, 루소, 석가모니 등으로 20여명 (중2) 공자, 이이, 김구, 간디, 폐기, 케네디 등의 20여명 (중3) 안창호, 정약용, 주자, 순자, 아우렐리우스 등 14명
인물학습	여성	(중1) 헬렌 켈러, 신사임당
	남성	(중1) 원효, 석가모니, 안창호, 이항, 공자, 페스탈로치 (중2) 이이, 예수, 정약용, 프랭클린, 일연, 간디, 이순신, 쉰원 (중3) 김삿갓, 노자, 영조, 루소
동서양 고전탐구	여성	전학년 없음
	남성	(중1) 맹자, 명심보감, 유토피아, 서유견문, 오륜행실도, 격몽요결, 효경, 향연 (중2) 해동소학, 사회계약론, 목민심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삼국유사, 국가, 독일 국민에게 고향, 백범일지 (중3) 논어, 장자, 변증론, 소유냐 존재냐, 채근담, 학교모범

여성인물 발견이 어려운 것인지, 남성과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수록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여성들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여성 위인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여성 위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¹³⁾.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발견들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 교과목(지학사, 2001)에서의 특성은 단원 끝에 역사여행이나 지리 여행

13) 예를 들면 과학자 마리 퀴리, 철학자 시몬느 드 보바르, 잔다르크, 버지니아 울프, 유학자 임운지당, 문학가 허난설헌, 독립운동가 유관순, 윤희순 등 각 분야의 여성 인물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을 떠나 해외의 특정 장소에 대한 설명을 일기나 편지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여행 주체가 남자이다. 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여행을 떠나는 주체는 부모님과 나(141쪽), 큰아버지 댁을 방문한 연수(187쪽, 성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름으로 보아 남자일 가능성이 높음), 사회 선생님인 아버지와 나(214쪽), 아버지 혼자(254쪽), 동석이의 삼촌(287쪽), 담임선생님(303쪽, 성별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소개를 하는 사람도 여행을 간 아버지로 표현되었다(45쪽).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여행의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아버지와 같이 간 경우에도 어머니는 짐만 싸주고 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여자 친척이 간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여행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사영역의 분리

본문의 내용에서는 성역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편견인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날에는 남녀의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성차별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 변화(금성출판사, 사회 중3, 2001:107쪽)와 함께 변화하는 남녀 직업 사진,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도표(교학사, 사회 중2, 2002:151쪽)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차별에 대한 내용 및 사례(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22~123쪽)와 더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군사 분야로 진출하는 '최초의' 여성 사례를 제시(지학사, 사회 중2, 2001:157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 중에서 본문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 사례에서 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은 사적 영역, 가정, 소비자/남성은 공적 영역, 직장, 생산

자'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이다. 특히 삽화나 사례를 보면,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남자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진로 고민이나 진로결정의 주체는 주로 남학생 사례가 많으며, 여학생이 주체가 될 경우에도 상상 속의 미래 직업인에 대한 모델은 남성을 떠올리는 삽화가 등장한다.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사례들을 통해 가정내에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실직에 보다 더 심각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여성의 실직보다 남성의 실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데, 여성이 주인공인 사진은 소비자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는 경우이고, 정부수립50주년 기념식, 증권회사객장, 환경단체 활동 등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사진에는 모두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중3 사회, 지학사, 표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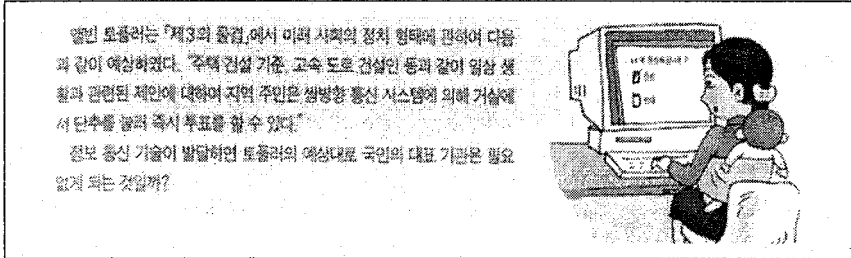
“지방의회본회의,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진 모두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지방의회의 사진에서 여성은 속기사로만 나온다(중3 사회, 지학사, 8쪽).”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진에서 기업, 정부의 사진은 남성만이 등장하고 가게의 경우 물건을 매매하는 측은 모두 여성이다((중3 사회, 지학사, 70쪽).”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나오는데 여성은 상품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로서만 등장하고 있다(중3 사회, 지학사,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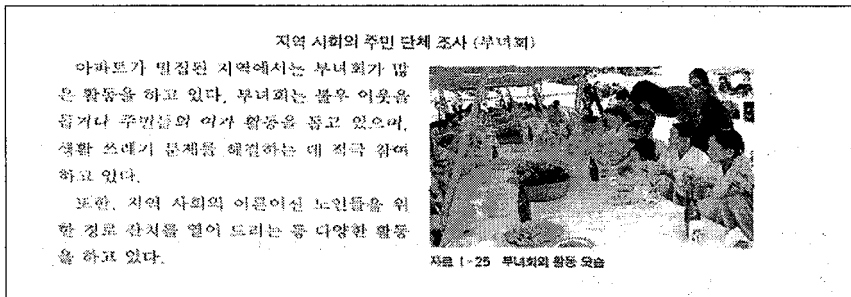
“여성이 인터넷 투표를 하는 사진을 보면, 아이를 업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중3 사회, 지학사, 19쪽).”

[그림 5-5]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장하면서, 실제 사례들로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과 정치의 대표들은 여전히 모두 남성들로 묘사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돌봄 역할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몫인 양 그려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투표를 하는 여성을 그리면서도 육아는 여성의 역할인양 아이 업은 여성을 그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남성이 아이를 업고 인터넷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렸다면, 가정 일에서의 성평등한 분담 뿐 아니라 육아 역시 남성의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5-6] 여성들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모습



주: 1)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조직한 단체의 대표로 부녀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주민의 여가활동을 돕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료: 중1 사회, 지학사, 31쪽.

[그림 5-7]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직업세계에서의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간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으로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여성이나 남성 개인이 성 역할고정관념을 바꾸어서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직업영역에 교차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와 기업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고용 문화 및 관행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함께 변화되어야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으로서는 성별 직업 분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시장내 성불평등 실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직업별, 교육별, 성별 임금지수 그림(동화사, 사회 중2, 2001:164쪽) 등 남녀 임금 불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낮은 이유와 대안에 대해 토론(디딤돌, 사회 중3, 2002:123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시 용모차별에 관한 사례(교학사, 사회 중2, 2002:158쪽)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교과서 본문에서는 성평등한 고용문화를 지향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교과서 전반에 걸쳐 실려있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 -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 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의 종류를 정리한 <표 5-2>를 보면, 남

성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직업은 소수의 특정 직업으로만 나타난다. 여성 직업은 미싱사와 같은 공장근로자, 시장 상인, 보험설계사, 경리원 등 저임금의 하위직들이 주를 이루며, 기업주나 회사 관리자 등의 고임금의 상위직으로는 한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 전문직중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여성전문직인 간호사, 교사가 많이 등장한다. 반면 남성들의 직업은 여성 직업에 비해 종류도 훨씬 많고 기계공이나 장인 등 숙련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 의사 등 고위직이 많다.

〈표 5-2〉 중학교 도덕, 사회 교과서의 남녀 직업 구성

구 분		내 용
여성 직업	기존	보험설계사, 경리사원, 은행원, 주부, 상인, 미싱사, 공장근로자, 간호사, 상점직원, 양호교사, 민원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미용사, 교사, 부녀회원, 식당주인, 속기사
	신규	소아과 의사, 판사, 건설현장 감독관, 사관생도, 컴퓨터 프로그래머, 수의사, 운동선수, 여성 파일럿, 정비기술배우는 외국인 여성, 재택근무자
남성 직업	기존	중소기업 사장, 의사, 장인, 버스기사, 우체부, 119 구조대, 환경미화원, 군인, 건축업자, 근로자, 기술자, 사무원, 재단사, 명장, 직장인, 노동조합간부, 택시기사, 한의사, 기계공, 기계사용 농민, 회사 과장, 농구선수, 근로자 권익 대표자, 화가, 축구선수, 구두장인, 건설작업반장, 치과 의사, 온라인 판매 농민, 지하철 운행기사, 기업대표, 어부, 시민단체활동가, 환경단체 회원, 공무원, 외국인투자자, 석유판매상, 고고학자, 컴퓨터 전공자, 실직회사원, 경찰관, 요리사
	신규	무용수, 미용사, 꽃꽂이, 영양사, 간호사, 피부미용사

전통적인 남성분야에 여성이 진출한 직업사례는 의사, 판사, 건축현장 관리자, 파일럿, 프로그래머 등으로 전통적인 여성분야에 진출한 남성 사례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의사는 의사라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로 나온다는가, 재택근무자의 사례자가 여성만 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일, 가정과 일의 양립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특정 직업의 경우 남성 위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농민 특히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도예가, 요리사 등 한 직종에서의 장인들은 남성만이 등장하고 있다.

“감사해야 할 사람으로 우체부, 119 구조대, 환경미화원, 군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음. 또한 남성이 대부분인 직업인만을 감사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중1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9쪽 사진).”

[그림 5-8] 대표적 직업인으로 남성만이 소개되는 삽화



TV 속의 성역할 변화에 관한 본문내용은 1985년도에 이루어진 연구를 인용하고 있어서 가뜰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의 자료를 수록해야만, 성역할의 실태와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중3 사회, 금성출판사, 2001).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 사례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성별 임금격차 실태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적절하거나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녀 간의 임금 불균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녀 차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세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위한 봉사와 공존의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중2 사회, 지학사, 163쪽).”

성별 임금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의 단적인 예이며,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임금 불평등의 해결 가능성이 불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결의 방향에 대해 출세와 대립의 가치관을 벗어나 봉사와 공존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로 전가시킴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중요한 원인은 노동시장내에 지속되고 있는 성별 직업 분리이다. 성별 직업분리의 현실을 알려주고, 성별에 따른 직업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남성의 직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해결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담당해온 가사와 양육과 같은 무급의 돌봄노동의 담당자라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내에서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서의 성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나 기업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는 가사와 양육 등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된 남성노동자로서 회사에 24시간 헌신하고, 회사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갈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한 성별 직업 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내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내의 무급의 돌봄 노동의 부담을 남녀가 함께 분담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문화와 국가의 고용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남녀 역할분담이 공평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으며(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75쪽), 탐구활동에서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는 사례(디딤돌, 사회 중3, 2002:13쪽)를 소개함으로써,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경제적 선택의 사례로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알뜰씨 사례(동화사, 사회 중2, 2001:46쪽)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소개와 21세기 남녀평등 현장을 소개(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81~3쪽)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성역할을 바꾸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반드시 여성들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나영이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나영이 부모님과 달리 언니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형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한다. 나영이 언니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한다’는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러한 가치관이나 생활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중3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75쪽).”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대안 중에서 재택근무의 사진을 여성 사진으로만 제한한 것은 또 다시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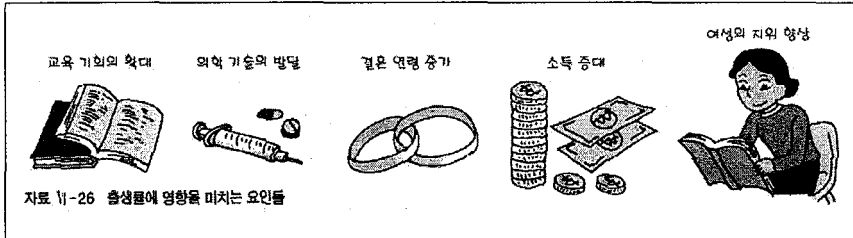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금성출판사, 사회 중3, 2001:55쪽). 마찬가지로 인구 정책에 대한 소개로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유아소와 탁아소 운영 및 임신부에게 많은 휴가를 주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책사례와 더불어 스웨덴의 정책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보육정책을 출생률 제고만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출생률이 낮아 인구정체 현상과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유아소와 탁아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며, 임신부에게 많은 휴가를 주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세금 혜택제도, 학교급식제도, 출산수당 제도 등을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실시하여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손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중3 사회, 지학사, 175쪽).”

자칫 잘못하면 공공보육정책은 여성의 근로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출생률 제고라는 시각에서만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려질 수 있다. 실제로 교과내용을 보면 여성의 취업 확대나 지위향상은 출산율 감소나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육 기회 확대, 의학 기술발달, 결혼연령증가, 소득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들고 있다(중3 사회, 지학사, 170쪽 그림).

[그림 5-9]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경제활동과 출산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또는 국가) 수준에서 보면 어떤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발견된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와 그렇지 않고 시장노동과 가정생활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장지연 외, 2005).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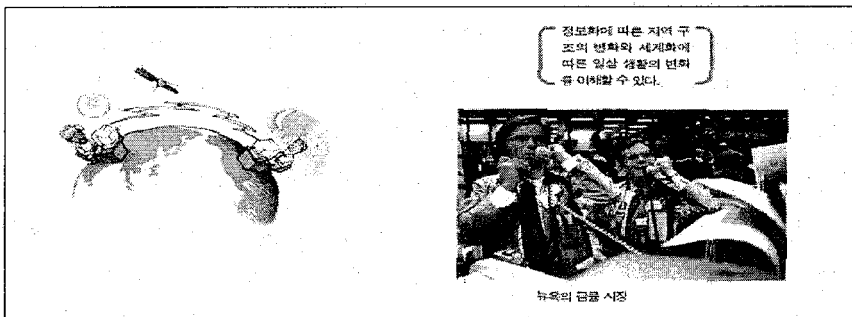
3.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가. 남성=근대화, 정보화의 주역, 여성=전근대성, 사회문제의 표상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경제성장, 근대화 과정의 주역으로서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더불어, 전근대성을 대표하고 환경파괴, 조기영아교육열풍 등 사회문제의 주원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사례, 그림과 사진 등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실려 있어서, 본문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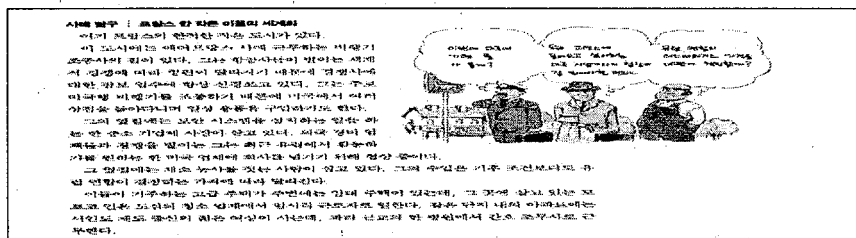
질적 분석 사례로 삼은 디딤돌에서 나온 사회 교과서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내의 농부 그림(디딤돌, 사회: 16쪽)과 농기계로 벼수확하는 농민의 사진이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으며(디딤돌, 사회: 60쪽), 지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를 보는 두 명의 남자 사진(디딤돌, 사회: 18쪽)과 가스 공사 직원과 지리정보체계(GIS) 대장은 모두 남성이며, 가스폭발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만 여성으로 나오는 그림(디딤돌, 사회: 30쪽) 등 정보 통신 시대의 일상을 설명하는 사례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다(디딤돌, 사회: 103쪽).

[그림 5-10] 근대화, 정보화의 주역으로 전제되는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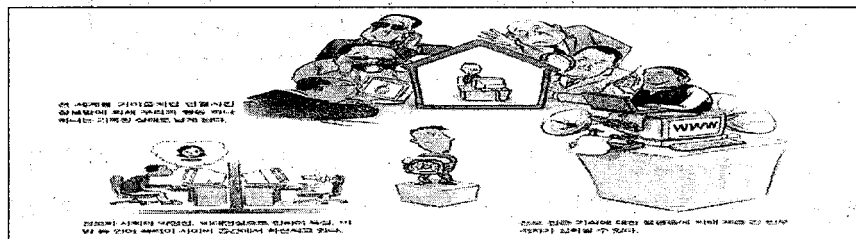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에 대한 설명도 전자 대화를 하는 회사원은 모두 남성(디딤돌, 사회: 159쪽 그림)으로 나오고, 고급상품인 모자를 생산하는 장인 역시 남성(디딤돌, 사회: 160쪽 사진)이며, 뉴욕의 금융시장 사진에도 남성들만 나온다(디딤돌, 사회: 162쪽).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 명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비행기 조종사, 중소기업체 사장, 농부, 청소업체의 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간호조무사의 직업만 묘사된다(디딤돌, 사회: 163쪽).

[그림 5-11] 세계화와 성별직종분리



21세기 유명직업에 대한 그림에서 인터넷 정보공급자, 벤처 기업가, 의료인,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은 남성으로, 과학기술자와 언론인만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이나 벤처, 정치인 등의 직업 영역에 여성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디딤돌, 사회: 236쪽 자료2).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로서 타인의 감시나 익명성과 관련된 내용의 주인공도 모두 남성들이며, 심지어 개까지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지만 여성은 단지 남성 컴퓨터 사용자의 상상 속에서만 등장하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디딤돌, 사회: 286쪽 그림).

[그림 5-12]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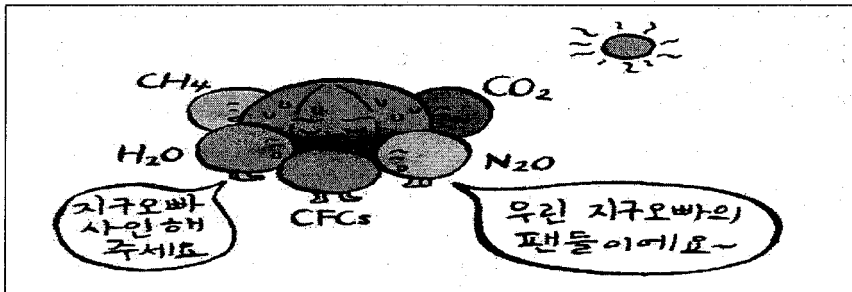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역으로서의 남성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주로 전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나온다. 예를 들면, 갯벌에서 일하는 여성(디딤돌, 사회: 49, 127쪽 사진)으로, 도시 상설 시장의 확대로 농촌 정기 시장의 쇠퇴 사진에서 여성 상인으로 나온다(디딤돌, 사회: 108쪽). 중학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아이와 장난감을 사

고 있는 여성의 사진(디딤돌, 사회: 248쪽)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엄마와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사진(디딤돌, 사회: 271쪽)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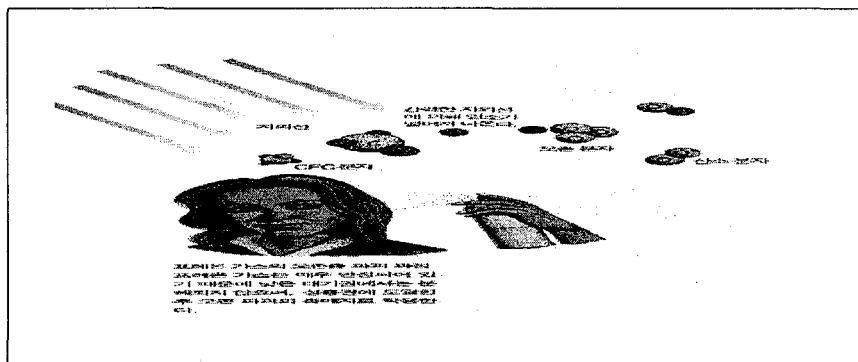
또한 여성들은 경제발전, 인구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괴롭히는 팬으로 나온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는 다름 아닌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그림의 대사를 보면, ‘지구오빠 사인해 주세요’, ‘우린 지구 오빠의 팬들이에요~(디딤돌, 사회: 117쪽).’ 그냥 성 구별 없이 ‘지구씨, 사인해 주세요’로 중립적인 표현을 해도 충분할 텐데, 은연중에 지구는 열심히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남성으로, 여성들은 놀면서 철딱서니 없이 지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림 5-13] 여성비하적 성별 묘사



오존층 파괴의 원인인 프레온 가스가 든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디딤돌, 사회: 118쪽).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존층의 주요 파괴 원인을 그리지 않고 부수적인 원인인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주인공으로 여성을 나타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

[그림 5-14]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로 묘사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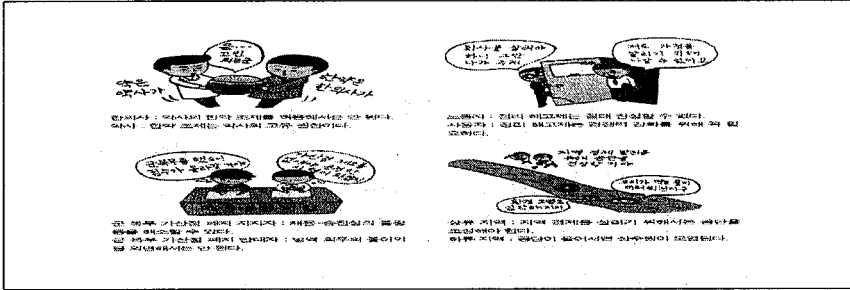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인물사례로서 아무리 허드렛일이라도 열과 성의를 다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를 외국의 호텔 청소부 여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도 하지만(디딤돌, 사회: 299쪽),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성의 직업에 대한 묘사는 주로 전통적인 성별 직업 분리의 논리에 따라 주로 여성 직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내 집터에 사회복지사업에 써 달라며 시가 4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증한 김 할아버지의 사례가 나오는데(디딤돌, 사회: 211쪽), 이 역시 평생을 어렵게 수익의 돈을 모아 사회에 환원하고 간 수많은 할머니들의 사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남성은 근대화, 정보화의 주역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 노동, 기술, 자본의 집수례를 자전거에 달고 끌고 가는 땀 흘리는 주인공으로서 주로 그려져 있어서(디딤돌, 사회: 223쪽), 경제성장의 주역은 남성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나.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내 성차별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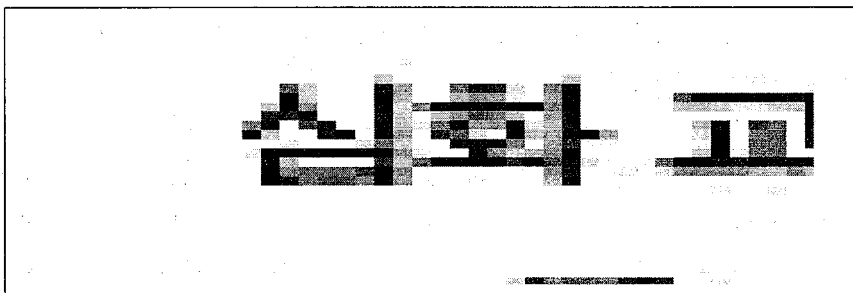
현대 사회의 성불평등은 가정과 경제, 정치 영역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기술하고(금성출판사, 사회·문화, 2003:87쪽), 공동체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 남녀갈등은 정치, 경제적 차별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편견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문제라고 언급되고(교학사, 사회, 2003:254쪽) 있다.

[그림 5-15] 사회 갈등의 주체로 묘사되는 남성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 갈등의 예시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체로 되어 있고 여성들은 보조적이거나 주변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의사/약사, 노동자/사용자, 군복무 가산점 폐지와 관련한 군인/인사관리자, 상류지역 사람/하류지역 사람 등이 등장하지만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디딤돌, 사회: 198쪽). 한의사와 약사 관련한 내용에서 가끔 여성 약사와 여성 한의사도 나오지만, 대표 당사자는 남성으로, 중재 아이디어를 낸 시민단체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디딤돌, 사회: 200쪽).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정당, 보건사회부는 남성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는 여성으로 등장한다(디딤돌, 사회: 204쪽).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익집단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과 공정한 중재기구의 마련의 사진들에 모두 남성만 나오거나(디딤돌, 사회: 210쪽), 경제영역의 갈등 그림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UN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다(디딤돌, 사회: 288쪽). 여학생들이 정치 영역이나 국제 사회의 영역에서 역할 모델을 갖고 꿈을 키워가도록 격려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많이 실릴 필요가 있다.

[그림 5-16] 정치·경제 영역의 주체로 전제되는 남성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례들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오히려 여학생들의 경우 취업하기도 전에 위축될 우려마저 갖게 한다.

주요 국가의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주요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천재교육, 사회·문화, 2003:227쪽)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낮은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사례들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차별 사례들이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223쪽; 금성출판사, 사회·문화, 2003: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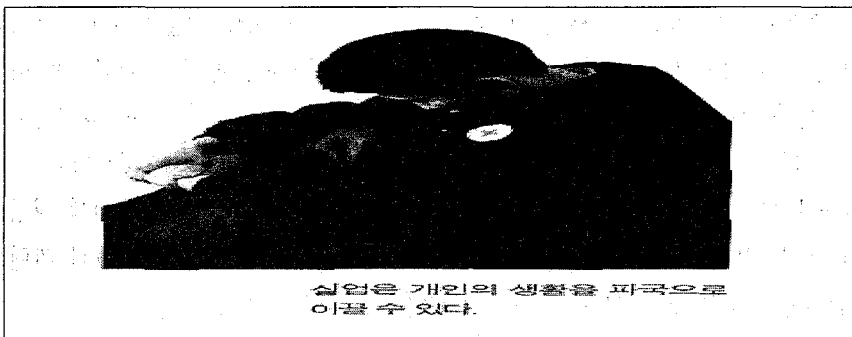
직장내 승진차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직위별 여교사 비율의 <표> 제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승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법문사, 사회, 2002:197쪽)과 유리천정(glass ceiling)을 묘사한 만화, 남녀박사학위자의 고용실태 및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99, 104쪽). 또한 언론의 여론면에 여성의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론계의 여성 언론인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2003:240쪽).

그 이외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불평등의 문제로서 여성들이 하위직, 비전문직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조기정년퇴직의 문제 등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가 64개국 중 61위라는 <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212

쪽). 다양한 직업세계의 사례에서 여자 법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성은 미용사로 남성 들은 의사로 나와서 노동시장내 성별 직업 분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94, 98쪽).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 실업의 급증 실태에 대한 서술과 국회내 실업대책위원회에 16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이라는 신문 기사가 인용되기도 하지만(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13쪽), 실업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전히 남성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구조조정을 당하여 은행을 그만두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디딤돌, 사회: 230쪽 본문). 교과서 내에 실업이 개인의 생활을 파국으로 이끈다는 내용의 주인공 사진은 고개 숙인 남성 근로자로 표현되거나(디딤돌, 사회: 235쪽 사진),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업 문제로 자동차 영업사원인 남성의 사례를 들고 있다(디딤돌, 사회: 236 사례).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독신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실직 문제도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5-17] 실직한 남성의 모습



노동시장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녀 대학생이 여성학 과목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직면해서는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천재교육, 사회·문화, 2003:242쪽).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여성 100년사를 7장면의 만화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취업 주부의 근로권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시위모습을 그리고 있다(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53쪽). 그러나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는 매우 미약하여, 능력이 뛰어난데도 여성의 승진을 제한하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녀평등가치관을 확립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서술이 실려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2003:289쪽).

다.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에게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직장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는 내용을 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는 무조건 여성의 역할로 놓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학생들에게만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자도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판결하는 삽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원화로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육아, 출산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다(천재교육, 사회, 2003:196~7쪽). 그러나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우선적으로 부인이 양육을 할 것을 설득했으나, 부인이 계속 일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남편이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례(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103쪽)가

제시되어 있다. 만일 법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일과 자녀양육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부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반씩 쉬기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훨씬 신선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사례에서는 암묵적으로 여성은 육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의 성공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로, 남성은 일보다도 육아를 중시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육아휴직사례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교과서 안에는 육아는 여성의 일차적 책임임을 암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야단치는 직장상사와 우는 아기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슈퍼우먼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68쪽). 만약 지각한 남성 사원이 아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모습이나, 밤늦은 회의 자리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먼저 일어서는 남성 사원의 모습을 그린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친근하게 육아를 남성의 일로 받아들이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보다 진취적인 내용으로 여성취업의 발목을 잡는 육아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비용의 사회분담방안에 대한 신문기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문화, 2003:125쪽)가 실리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는 주로 가족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법문사, 사회, 2002:100쪽).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취업 증가를 가족문제라는 부정적인 현상과 연계시킴으로써, 남녀 학생 모두에게 여성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교사가 성평등한 토론 지침을 가지고 수업을 지도하지 않는 한, 가정문제는 모두 여성의 책임이며,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양육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후에나 취업 병행이 가능하다는 여성 취업에 대한 현재의 편견을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 여성취업의 증가와 가족문제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내 여성 역할의 공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남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일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변화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업과 국가 차원의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마련으로 해결가능하다.

4.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방안

성평등에 대한 교과내용은 대부분 규범적인 수준에서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상응하는 역할의 변동이 필요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 역할분담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 평등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이라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급 노동에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가정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무급의 돌봄 노동을 남녀가 같이 나눠 하고, 가정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사회나 도덕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고용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 제시와 더불어 가정내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 구조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갈등 상황의 사례로, 도덕 교과목에서는 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원인이 직장내 성 불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도 거의 없다.

일·가족의 양립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과 의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만 일과 가족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불평등한 고용문화

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하위직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 분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외국의 대안적인 사례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본문의 내용과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서술이 성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하여 남성이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거나 사회변화와 역사의 주체로 표상되는 성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화나 사진담당자도 남성들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의 변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독립된 내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성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일관성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평등의 현실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보다 정보 전달 효과가 뛰어난 시각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의 선택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직장문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교과서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과 저자와 그림, 사진 담당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교과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또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 2절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가.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성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의 정책 방향은 목적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임금을 비롯하여 교육이나 배치, 승진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 직장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은 정책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 원칙에 따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들이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은 성에 따른 직업 분리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비전통적인 직업에 여성을 통합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여성가장 지원 프로그램 등 남성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평등고용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직장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이 있다. 여성의 가사, 육아, 노인부양 등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이 남성보다 많이 있는 한, 노동시장내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와 기업이 남성들을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가정 양립지원정책은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실천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친화제도는 기존의 취업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출산을 제고 등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문유경 외, 2000:32~37쪽).

1) 스웨덴

①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스웨덴은 1980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법(Act Concern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시행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성 취업률이 높고 남녀 임금격차가 적은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남녀 종업원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으며, 직장환경을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채용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응모자를 모집해야 하며,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녀 종업원이 각종 업무에서 수적으로 균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한 성이 적어도 40%를 차지함을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한 성이 40%가 되지 않은 직종에서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소수의 성을 우선해서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책적으로 보완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결과가 1991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Act between Men and Women)'이다. 이 법의 강화된 남녀평등내용을 보면, 구직단계부터 성차별 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 직접 혹은 간접차별 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화, 그리고 평등 옴부즈만의 감독범위 확대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문유경 외, 2000:93~95쪽).

②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남녀고용할당제

1981년 스웨덴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촉진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수준을 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녀고용할당제(Sex-based employment quotas)로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느 한 쪽 성이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남녀고용할당제를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남녀고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녀고용할당제는 정부지원으로 늘어난 신규채용과 결원의 충원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성을 우선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각성의 비율이 최소한 40%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다.

스웨덴 정부는 고용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할당제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다. 고용에서의 성별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원조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남성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키거나 반대로 전통적인 여성 업무 훈련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성별 직종 분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공급 과정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로서 고용평등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다(문유경 외, 2000:97~99쪽).

③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스웨덴을 포함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일하는 엄마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의 임금보전을

은 높게 유지한다. 한편 양육의 책임은 상당 부분 국가가 공유하여 공보육 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 있고, 시간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하였다(daddy’s quota). 15개월 중 한 달은 아버지가 사용하되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그 휴가자격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2002년에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기간도 연장되었다. 2002년 이후 12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2개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자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장지연, 2005).

2) 미국

①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남녀동일임금법(Equal Pay Act, 1963)과 시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이 있다. 남녀동일임금법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일부로서 상업과 생산활동에서 고용주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민권법 제7편은 고용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의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고용주라든 개인의 성별, 종교, 인종, 국적을 이유로 고용상의 보상, 기간, 조건, 특혜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피고용인이나 지원자를 제한하거나 분리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강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의적인 성차별에 대한 처벌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다(문유경외, 2000:132~3쪽).

② 고용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 촉진 정책 (WANTO)

고용상의 성별 직종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최근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비전통적 진로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성별 직종분리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취업 분야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은 1984년 성평등 조항이 강화된 칼 C. 퍼킨스 직업 교육 법안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1990년에는 미국 직업 교육 수정 법안을 통해 여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확대하면서 강화되고 있다(정해숙, 1999). 즉,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에 따라 고임금의 잠재성 있는 기술직, 공학 계열의 직종에 취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여학생들의 비전통적 진로 촉진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통적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이 25%가 되지 못하는 직업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수당이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 중 6%만이 비전통적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진로 촉진 프로그램 중 EYH(Expanding Your Horizons : 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in Science and Mathematics)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분야 등 남성 지배적인 영역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317~8쪽).

③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양육에 대한 국가

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장지연, 2005:100쪽).

미국은 유급모성휴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으며, 인구의 약23%가 거주하고 있는 5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에서 임시장애 보험법(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으로 약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평균 5~13 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평균 주당급여는 142~273달러 정도이다. 부모휴가는 무급으로 주어지는데, 고용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고 만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였다면 12주간의 가족휴가와 의료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성휴가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휴가에서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으며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휴가부분을 호환할 수 없게 규정하였으나, 임금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재원조성이나 비용지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장지연, 2005:91~96쪽).

3) 한국

①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라는 ‘남녀 균등 처우의 원칙’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정부 수립시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를 따라 한 장식적인 법률 조항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의 누락, 벌칙 규정의 미약 등 일부 법 조항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면서 1989년 4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8월에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별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 제시의 금지,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까지 육아휴직의 확대 등이 추가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2월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삽입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평등과 보호는 물론 여성의 성희롱 방지까지 구현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리잡게 되었다(강이수 외, 2001:295~7쪽).

또한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남녀 차별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만하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법은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남녀 차별 금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 남녀차별개선 실무위원회의 운영조항을 두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2005년 3월 여성가족부 소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차별판단 및 구제에 대한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통합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내놓았는데, 이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19개의 차별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차별사유를 20개로 확장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박봉정숙, 2006).

② 고용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2년 제5차 개정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우대조치’변경하였다. 대표적인 적극적 조치로는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들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외무고시에서 여성합격률은 1998년 23.1%에서 2002년 45.7%로 증가하였고, 행정고시에서는 여성합격률이 23.1%에서 2002년에는 28.4%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국공립대학교 여성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에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확산되어 사회갈등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꾸어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성이 30% 미만일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양적인 성비 균형을 의미하는 평등개념(김경희, 2005)으로 후퇴하여, 적극적 조치의 본래 취지가 희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4년부터 노동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낮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시범 실시하고, 2006년까지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의 성비 불균형과 직종간 성별 격차는 점차 완화될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절대 다수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사적인 부문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출산과 초기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과 육아휴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0일은 여전히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이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의 보전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법적으로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대기업의 정규직 여성 근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절반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이 제도들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장지연, 2005:101쪽).

최근에는 모성휴가제도가 현재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 역할을 강화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¹⁴⁾.

보육정책의 경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2005년 12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는 약 99만 명으로 전체 대상 영유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공보육 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비율이 15.9%로 매우 낮고, 대부분의 보육수요가 민간시장 중심의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서 비용부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4)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EU 국가들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와 운영은 여성의 산전후휴가에 준한다.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장지연, 2005:105쪽).

2. 국내외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기업 사례 현황

가. 성평등한 기업문화로서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 배경과 의의

현대사회 기업에 있어 남녀 근로자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직장에서의 역할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으로서 역할의 양립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기업 문화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친화 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육아 및 가족관련 휴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서비스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친화 기업이라 함은 이러한 가족친화 제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과 가족을 조화시키고 있는 가족친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의 '헤르티에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산성이 30%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친화적 제도의 시행이 기업에게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강혜련 외, 2006:1~2쪽).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 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실업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job-sharing)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¹⁵⁾

①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탄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직장 가족 영역의 일을 보다 더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 시차 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조정하여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가정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 집중근로시간제

집중 근로시간 프로그램이란 일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5일 이내에 끝내거나 2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1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중 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인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간제 근무

시간제 근무란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두

15)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과 기업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강혜련 외)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하였다.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 선호되며, 특히 출산과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직무공유

직무공유란 두 사람이 하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실업을 줄이면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자리를 공유하면서도 승진 가능성이나 휴가, 기타 보조적 급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재택근무

재택근무란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시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경력휴가

경력휴가란 근로자가 일정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는 장기간의 휴가를 말하며,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② 육아지원 제도

육아지원 제도는 근로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 육아데이

육아데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휴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및 육아휴가(maternity leave)를 포함한다. 휴가 기간이나 휴가 청구자의 자격조건, 유급 또는 무급여부, 승진 기회와의 관계 여부 등에서는 각국마다 차이를 보인다.

◆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는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육 서비스를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도 자녀를 볼 수 있고 비상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작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친(부성) 휴가

부친휴가란 부친이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ILO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친휴가를 인정하는 국가는 15개국이며, 보통 2 ~ 3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정보소개 서비스는 사외의 보육정보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취업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경제적 지원 서비스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이와 관련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미국 기업의 경우 카페테리아(cafeteria)식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양질의 건강보험, 퇴직연금, 특별휴가 등 몇 가지 복지 플랜(plan) 중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근로자 기업정책을 말한다.

◆ 수유지원 프로그램

수유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에 수유방을 설치하고 유축기, 냉장고 등 수유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배치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가족지원 제도

가족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아픈 자녀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직장 양립을 지원하며, 기업주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드는 교육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가족간호 휴가(Family leave)

가족간호 휴가란 유아나 병 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며 병가처럼 가정의 일을 위해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 탁노 프로그램 (Elderly care)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노인가족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정보소개 서비스에서는 자녀양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에 대해서도 정보와 법률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이 노인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학자금에 이르기까지의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영어캠프, 컴퓨터 교육 등 방학기간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 가정의 날

가정의 날이란 근로자 가족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이 가족 구성원들을 회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음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 상담 프로그램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상담 등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각종 불만이나 고민거리 등을 털 수 있으며 직장만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④ 근로자지원 제도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서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결근, 지각, 이직, 사고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 EAP/ECP 프로그램

대표적인 근로자 지원제도로는 직장내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주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나 ECP(Employee Counselling Program)가 있다. EAP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좁은 범주의 상담으로 근로자의 직무성능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전략이다. 반면에 ECP는 노동인력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

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이 밖에 가사조력자나 보모 알선 등과 같은 전문인력 소개 서비스, 개인의 금융자산 투자상담 프로그램, 법률상담 프로그램 등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⑤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이란 앞서 소개한 제도 및 정책들이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미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외면하고 있어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제도가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한 상사 및 동료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문화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 교육과 연수를 통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업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을 조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성을 사내교육 혹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도입하거나, 사보를 통해 육아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조직개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각 작업장의 직장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직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내 프로젝트 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을 꾀할 수 있다.

◆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프로그램

직장과 가족의 조화는 비단 여성근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의 상급 관리자 중 여성의 비중이 커질수록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국내외 대표 사례들

① 국내 대표사례(1) : 유한킴벌리

1970년 설립된 이래 유한킴벌리는 아기기저귀, 여성생리대, 화장지, 미용티슈 등 건강위생용품 제조업체로서, 인간중심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종업원의 일과 가정, 지역사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기업이다. 유한킴벌리는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과로체제를 방지하고 평생학습 시간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정내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양한 모성보호 정책의 실시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가족친화적인 유연한 근무제도와 평생학습

우선, 유한킴벌리 가족친화 경영의 대표적인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로체제를 방지하는 예비조 운영을 포함한 탄력적인 근무제도이다. 이는 근본적

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틀을 혁신함으로써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1993년부터 실시된 생산직의 4조 근무제가 대표적이며, 1994년부터 관리직의 시차출퇴근제, 1999년 영업직의 현장출퇴근제가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교육 및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더욱 발전되어왔다. 특히 회사는 근로자들의 교육시간 투자를 늘려서 2005년 1인당 유한킴벌리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무교육시간은 306시간에 이른다. 이렇게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통해 얻게 된 시간을 활용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사내에는 자발적인 학습조직들이 늘어났고, 평생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퇴직예정자를 위해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제도적으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대학등록금까지를 지원하고,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 분야에서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 성평등한 지원제도 운영과 모성보호

이러한 유연한 근무제도의 영향으로 가족 안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육아(자녀 돌봄)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출산전후휴가, 유산산 휴가(2006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시 제왕절개 수술 의료비를 지원과 출산후 출산축하금과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 내 여직원 휴게실과 별도의 모유수유공간인 '느티나무 그늘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현재 유한킴벌리 본사 사무직 여성 근로자 비율은 47.8%(2005.12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 여성입사자수가 남성입사자 근로자 수를 추월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여성 인력의 성장이 주목된다.

◆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제도 운영

이 상담제도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문제도 회사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도록 도움으로써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근로자나 가족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또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족관련 사내특강을 매월 열어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을 위해 멘토(mento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지역사회 공헌 및 대사회적인 가족친화문화 확산 위해 노력

또한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업장 초청행사들과 함께 부부대상 사내특강, 근로자 자녀야구단 활동,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원과 가족들이 유연한 근무제도에 따라 남는 시간을 가족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② 국내 대표사례(2): 삼성 SDS

삼성SDS는 1985년에 삼성 데이터 시스템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999년 국내 SI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도 삼성SDS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 협의 후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반나절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 반월차제도와 근무장소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제도화하였다.

또, 1일 2회 각 30분간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수유편의시설인 ‘도담이방’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수유방 안에는 수유기, 냉장고 등을 비치하여 모유 수유를 지원하고,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모성보호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총 85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육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여성인력의 고충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SDSWomen.com)를 2002년 3월 오픈하여 현재 약 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③ 국외 대표사례(1): 포드 자동차

미국 포드 자동차는 1903년 헨리 포드(Henry Ford)와 그밖의 11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된 회사이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가변적 업무설계, 탄력근무, 재택근무, 육아, 가정교육, 노부모 부양, 심신 건강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근로자들의 개인 성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직업적 재능을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육아를 위한 개인적인 카운슬링과 교육자료도 제공해 준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거나 갑작스런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보육사가 최고 80%의 비용으로 24시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를 돌봐준다.

탄력적 근무제는 정규직의 풀타임 근무자들이 가족문제, 교육, 경력개발 또는 사회봉사 등 개인적 이유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그들의 업무 시간을 관리자의 허가 아래 90%까지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필요(Needs)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스스로 근무 시작 시간과 끝마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응급 시 대체 보육을 위해 포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6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학 그리고 여름계절 프로그램, 미시간 동남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Plymouth-Canton and Dearborn의 공립학교와 헨

리 포드 박물관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포드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④ 국외 대표사례(2): 바스프

바스프는 플라스틱·염료(染料)·섬유·비료·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전 세계 38개국에 생산시설이 있고 170개국에서 영업 활동 중이며, 본사는 루드비히사펜에 있다. 관련 업계의 대표 회사로 손꼽히는 바스프는 풍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가족친화기업으로 타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바스프에서 마련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틴즈 온 투어, 루키즈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근로자 자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자 자녀가 방학 중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6~11세 어린이를 위한 '키즈 온 투어'와 12~14세를 대상으로 한 '틴즈 온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데 초기 투자비용만 2만 유로(약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또 학생 한 명당 100유로(약 12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학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또 프로그램 시작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프로그램이 끝난 뒤인 오후 6시까지 회사가 아이들을 맡아 준다.

이밖에도 바스프가 운영 중인 사내유치원 루키즈(Lukids)에서는 전문 보모가 3세 미만의 아기들을 돌본다. 바스프 근로자는 출근 때 아기를 루키즈에 맡겼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 바스프는 세 살 이하 아기를 맡아 주는 '루키즈'에 매달 3만6000유로의 예산을 지원한다.

바스프는 거대한 화학공장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0~20년 뒤에는 틴즈 온 투어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바스프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된다.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은 미래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 이외에도 회사와 가족을 결합하는 이음새가 되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바스프는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하고 있다.

제 3 절 한국형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방향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평등한 환경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최숙희·김정우, 2006).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들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청된다. 현재자본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모델은 '가족이나 개인적인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한한 이동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내 생활은 철저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하루 24시간을 회사와 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일중심적·남성중심적 노동자 모델이다(신경아, 2001). 임신과 출산 등 모성기능과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젠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남성노

동자와 같아지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처럼 가정내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진 노동자로서 직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자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¹⁶⁾.

둘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노동자’의 전통적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족모델이나 ‘남성 1차 부양자 - 여성 2차 부양자’ 모델이 아닌, 양성(性)이 동등한 의미에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 소득자’ 가족모델에 기초하여 국가의 고용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가족모델 하에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내 가사와 육아,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 역할의 일차적 담당자를 여성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남녀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등을 겪게 된다. 반면 2인 소득자 가족모델에 기초하여 고용정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하게 일하고 사적 영역인 가족내 돌봄 역할과 의무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가족정책은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철폐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하고 양육과 고용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이는 가족 내 가사와 육아를 남녀가 분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이재경 외, 2005).

셋째, 노동시장내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차별 폐지를 위한 법적 자원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적극적 조치 조항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법규정이 있

16) 핀란드의 ‘6+6 노동시간 모델’은 풀타임 근무를 하루 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으로 과거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풀타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신경아, 2001).

어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차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조정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고용차별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승진·순환보직·정년·해고 등 남녀 고용차별과 관련된 각종 지침의 개발과 행정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인 여성고용할당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 있는 사적인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기업내 여성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 운영방식을 여성친화적 또는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맡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와 양육을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해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앞 절에서 자세히 제시한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들인 탄력적인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 등을 각 기업의 조건에 맞게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장 미래세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제언

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세계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고 다음 세대를 낳아서 키우는 ‘가족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화두 속에서 한국사회 보살핌노동 영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

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는 가족문화·고용문화를 모색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의 증대이다. 가족과 고용 모두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고 구성원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로 접근될 때 ‘성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노소의 구분도 사라지는 통합적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곧 생활친화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가족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지만 세대간 차별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는 동일한 철학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하는 듯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는 개별가족에게 과부하되어 있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그 방식은 공보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혹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직·간접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을 피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연히도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즉, 유급노동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 바로 여성들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와 여성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국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회(old population)가 되고 절대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성원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여전히 2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독신율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늘어나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친밀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욕구, 기존의 친밀성 구조 즉, 기존의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80~90%대로 끌어 올려야만 할까? 여기에서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다. 즉,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 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을 권리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우리의 미래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많은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들 때, ‘유급노동을 중단할 권리’, ‘돌봄노동에 주력할 권리’라는 표현은 매우 위협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권리 제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모순되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 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이면서도 그 두 가지 노동을 도저히 병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돌봄노동이 개별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현실과, 이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 관행 등 수많은 관행들이 난마처럼 얽혀서 결과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사회가 여성노동력에 요구하는 바와 여성들 자신이 요구하는 바의 표피적 상동성이 실질적 상동성으로 전화되는 미래도 가능하다. ‘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을 확장시키면 가능하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확장된 일 세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한국 여성노동의 이해』, 동녘.
- 강점숙 외(2003), “독일가족복지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7집 3호.
- 강혜련 외, 보고서(2006)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 여성가족부.
- 김경희(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 김두섭 외(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한양대학교.
- 김명중(2006),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1.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월호, 통권 103호.
- 김중기(2005),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05년 11+12월호. Vol. 32. No.6.
- 김혜영(2006),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 현안과 실천과제: 5월 가정의 달 기념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2006.5.25).
- 김양희·이수연·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문옥륜 외(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국회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보고서.
- 문유경 외(2000) 『OECD 회원국의 고용평등정책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 문은미(2004), “노동운동의 위기와 여성노동운동의 도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여/성이론』 여름 통권 10호.
- 문현아(2005), “국가는 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겨울 통권 13호.
- _____(2006), “가족내 노동의 재구성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2006년 정기학술대회 <전환기의 한국가족> 발표문.
- 민무숙 외(2006),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 박기남(2006), “여성노동의 현실과 대안”, 한국여성연구소 편 『새여성학 강의』 동녀.
- 박봉정숙(2006)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 7답.”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제175호.
- 박선영(2006), “2006년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부부재산제, 배우자상속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2006년 7, 8호.
- 박세경(2005),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월호. 통권 103호.
- 박수미(2005a),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 생애주기별 접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_____(2005b),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박효숙(2006), “일본의 일과 생활의 양립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1.
- 변화순(2003),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서병숙·김혜경(2002),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1호.
- 신경아(2001)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경제와 사회』 제51호.
- 여성가족부(2005), 『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공청회”, 2006년 4월 27일 자료집.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2006-4-A), “세계여성정책동향: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프랑스 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세계여성정책.
- _____ (2006-4-B), “세계여성정책동향: 출산장려 및 가정과 직장 생활 병행정책(핀란드 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세계여성정책.
- _____ (2006-7), “세계여성정책동향: 독일의 가족 및 보육정책”,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정책자료실 세계여성정책.
- 윤홍식(2005a),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7권 4호. 11월호.
- 윤홍식(2005b), “OECD국가들의 남성 돌봄노동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11월 23일).
- 은기수(2004),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세대간 가치의 양극화?”, 성균관대 서버이리서치 센터·삼성경제연구소 주관, 제1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움 자료집(2004.6.2).
- 이삼식(2005),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주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05년 11+12월호. Vol.32. No.6.
- 이삼식 외(2005),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5권 1호.
- 이은아·마경희(2006),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문화 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토론회 자료집.

- 이재경 외(2004), “한국 가족의 현실과 변화”, 여성부 발간보고서.
- 이재경 외(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1권 3호.
- 장지연 외(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 외(2005),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춘숙(2003), “가정폭력관련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일반인, 피해자, 경찰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전화(2003.7.1), 『가정폭력방지법 시행5주년기념토론회』 자료집.
- 정혜숙·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조애저(2005),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월호. 통권 103호.
- 조은희·전경근(2004),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최봉섭(2005), “Extended School, 학교역할의 개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05년 11+12월호. Vol.32. No.6.
- 최숙희·김정우. 2006.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최은영(2006),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월호. 통권 111호.
- 통계청(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주영(2002), “가족의 성별분업은 어떻게 해체가능한가?”, 『철학과 현실』, 여름호 통권 53호.
-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200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추진성과와 과제”, 제34차 여성정책포럼자료.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2006), “평등명절 십계명”,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10월호 뉴스레터.

- 한국염(2006),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대구여성회
2006 결혼이주여성인권지원 전문상담원교육 자료집.
- 기틴스, 다이애너(2001), 『가족은 없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김
홍주·배선희 외 옮김, 일신사.
- 소온, 배리 외(2003),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
- Angrist, J. & W. N. Evans, 1998,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450~477.
-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271~26.
-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729~739.
-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178~190.
- DeGraff, D. S. & R. Anker, 1999,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è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Donahoe, D. A., 1999,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543~574.
- Engelhardt H., T. Kögel, & 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i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Vol.58, No.1, pp.109~120.
- Folbre, N., 1997,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647~654.
- Greenstein, T. N., 1995,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6:149~169.
-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Klerman, J. A. & A. Leibowitz, 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36:377~385.
- Künzler, J., 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hrer, E. & M. Nerlove, 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81~204.
- Lloyd, C. B., 1991,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fertility surveys to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22(May/June):144~161.
- Mason, K. O. & V. T. Palan, 1981,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Peninsular Malaysia: the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523~3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427~430.
- Morgan, S.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589~603.
- Perry-Jenkins, Maureen, Rena L. Repetti, & Ann C. Crouter,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981~998.
-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258~289.
- Sacks, Nancy E. and Marrone, Catherine(2004), *Gender and Work in today's worlds: a reader*, Westview Press.
-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Somerville, Jennifer(2000), *Feminism and the Family: Politics and Society in the U.K. and USA*, McMillan Press.
- Stacey, Judith(1991),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Basic Books.

Torr, B. M. & S.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109~130.

Van Esterik, P. & T. Greiner, 1981, "Breastfeeding and women's work: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184~197.

[부록]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 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승 인 번 호
제 0 6 0 2 1 호

조 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학생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반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12-14
1	※ 학생은 가입안함	※ 학생은 가입안함	☐ ① 초등학교	☐ ① 남학교			※ 학생은 가입안함
			☐ ② 중학교	☐ ② 여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③ 남녀공학			
			☐ ④ 고등학교(실업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응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1

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2. 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학생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명
형/오빠	
누나/언니	
남동생	
여동생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0' 명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많은 편이다

☐ ② 적은 편이다

☐ ③ 적당하다

☐ ④ 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 ① 모두 살아 계신다

☐ ②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 ③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 ④ 모두 안계신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했거나 별거 중인가요?

☞ 별거란? 이혼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부모님 중 한분만 살아계시거나 모두 안계신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주로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나요?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 ② 어머니

☐ ③ 아버지

☐ ④ 친할머니(외할머니)

☐ ⑤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 ⑥ 형제자매

☐ ⑦ 이웃

☐ ⑧ 도우미 아주머니

☐ ⑨ 기타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② 중학교
☐ ③ 대학교
☐ ④ 모르겠다

- ☐ ⑤ 초등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원
☐ ⑧ 아버지가 안계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② 중학교
☐ ③ 대학교
☐ ④ 모르겠다

- ☐ ⑤ 초등학교
☐ ⑥ 고등학교
☐ ⑦ 대학원
☐ ⑧ 어머니가 안계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 ☐ ① 중학교
☐ ② 대학교

-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원

10. 현재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 ☐ ①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일 하신다

- ☐ ② 아버지만 일 하신다
☐ ④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11. 학생은 현재 친할머니(외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 ☐ ① 예

- ☐ ② 아니요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안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못 사는 편이다

- ☐ ② 잘 사는 편이다
☐ ④ 못 사는 편이다
☐ ⑥ 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 ☐ ① 불교
☐ ③ 천주교
☐ ⑤ 종교 없음

- ☐ ② 개신교(기독교)
☐ ④ 기타 종교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시는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계신다 | |

15.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 |

16. 학생은 가족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임명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일말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흔히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님 중 한 분하고만 사는 가정, 재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형제자매들끼리만 사는 가정, 할아버지(할머니) 하고만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 ①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 ☐ ②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
| ☐ ③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 ☐ ④ 모르겠다 |

18. 학생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부모님의 냉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 ☐ ②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 ☐ ③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양직 돌아가셔서 | ☐ ④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
| ☐ ⑤ 모르겠다 | |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국어 | ☐ ② 도덕 |
| ☐ ③ 사회 | ☐ ④ 과학 |
| ☐ ⑤ 기술·가정(실과) | ☐ ⑤ 외국어(영어) |
|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 ⑧ 기타 과목 |
| ☐ ⑨ 배운적 없다 | |

20. 가족에 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 |
|---|--|
| ☐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 ☐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
| ☐ ③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 ☐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
| ☐ 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 | ☐ ⑥ 가족과 이웃의 관계 |
| ☐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 ☐ ⑧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1.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 | ☐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 ☐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배울 알게 되었다 | ☐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
|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 ⑥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2.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연령만 기입해 주세요)

- 1) 남자: 세
 2) 여자: 세

3. 학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모르겠다

5.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사람'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 까지만 응답해주세요.

■ 첫 번째 중요한 것 () ■ 두 번째 중요한 것 () ■ 세 번째 중요한 것 ()

< 보 기 >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위)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⑦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⑧ 성격	⑨ 민음과 사랑
⑩ 종교	⑪ 공학	⑫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⑬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 관계, 성장 배경)		
⑭ 출신지역(배우자 집안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⑮ 기타 조건
⑯ 조건 없다 ⑰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할지 모르겠다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④ 모르겠다

7. 학생은 앞으로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 ②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 ③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 ④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 ⑤ 모르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⑥ 0명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 ⑦ 모르겠다

9. 학생이 자녀를 둔다면 꼭 아들을 갖고 싶으세요?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 ③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까

☐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 ⑧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있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2. 학생은 자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란? 출산, 아이 돌보기, 교육 등을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 ② 아니요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

16.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7.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9. 학생은 부부의 역할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를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①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월경, 양정) ☐ ② 야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 ③ 피임방법
☐ ④ 임신, 출산 ☐ ⑤ 미혼모, 인공유산 ☐ ⑥ 성병, 에이즈
☐ ⑦ 기타 ☐ ⑧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⑥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부모나 친인척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나 선후배
☐ ④ 비디오 (CD, DVD) ☐ ⑤ 인터넷(동영상) ☐ ⑥ TV
☐ ⑦ 잡지, 만화 ☐ ⑧ 사회·종교단체(청소년단체, 교회 등)
☐ ⑨ 기타 ☐ ⑩ 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 ① 부모와 상담 ☐ ② 형제자매와 상담 ☐ ③ 학교선생님과 상담
☐ ④ 상담전문가와 상담 ☐ ⑤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 ☐ ⑥ 성교육 관련 책
☐ ⑦ 인터넷 또는 PC 통신 ☐ ⑧ 혼자 해결 ☐ ⑨ 기타 방법
☐ ⑩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⑪ 고민한 적 없다

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2)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 인공유산이란? 임신한 경우 아이를 낳지 않고 일부를 없애는 것	☐ ①	☐ ②	☐ ③	☐ ④
3) 생경, 애이즈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4)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5)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⑧ 기타 과목
☐ ⑨ 배운적 없다

7. 출산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 ② 생명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③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 ④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⑥ 기타
☐ ⑦ 배운적 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 ① 낳아야 한다 ☐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 ③ 낳아서도 안 된다 ☐ ④ 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 ☐ ① 현재 교제 중이다 ☐ ②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 ③ 교제 한 적이 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있기 때문이다.
 12번, 13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2.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 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 ②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
☐ ③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 ⑤ 자녀를 키우는 것만 애매하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13.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툰 일이 줄어들 것이다 ☐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 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 ⑦ 기타

14.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① 예 ☐ ② 아니요



15. 학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6.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우 좋을 것 같다

☐ ② 좋을 것 같다

☐ ③ 싫을 것 같다

☐ ④ 매우 싫을 것 같다

☐ 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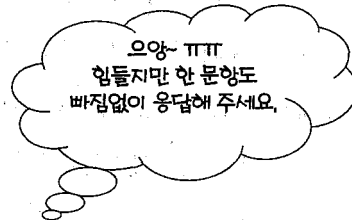
17.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② 가족이 돌봐야 한다

☐ ③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 한다

☐ ④ 모르겠다



4

다음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차상부류거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중요함	대체로 중요함	별로 중요함	전혀 중요 않음
1) 편안한 생활	☐ ①	☐ ②	☐ ③	☐ ④
2) 풍요로운 물질생활	☐ ①	☐ ②	☐ ③	☐ ④
3) 더불어 사는 삶	☐ ①	☐ ②	☐ ③	☐ ④
4)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 ①	☐ ②	☐ ③	☐ ④
5) 자유로운 생활	☐ ①	☐ ②	☐ ③	☐ ④
6) 인간에 대한 사랑	☐ ①	☐ ②	☐ ③	☐ ④
7) 화목한 가정	☐ ①	☐ ②	☐ ③	☐ ④
8)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9)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 ①	☐ ②	☐ ③	☐ ④
10)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 ①	☐ ②	☐ ③	☐ ④
11)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hsa.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4
협동연구 2006-01-4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Future Generation Youth's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6,000원
저 자	박 수 미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387-5 93330

ISBN 978-89-8187-383-7 93330(전6권)